

2023 프랑스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 지표	5
2. '23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성장 정체	6
나.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7
다. 프랑스 정부의 공급망 재편 가속	8
라. 2024 파리 올림픽 개최 준비 본격화	9
마. ESG 경영 강화에 따른 국내외 협력사 동참 요구	10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4
2. 시장 분석	26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6
나. 수출	28
다. 투자 진출	31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협력 의제	35
가. 교역	35
나. 투자	39
다. 협력 유망 분야	41

III

진출전략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46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7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58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62
첨부 3. '23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65
첨부 4. '23년도 정치·경제 주요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66

2023

프랑스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긴장으로 물가인상 심화 및 GDP 성장률 하락 전망('23)

- 당초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의 GDP 성장률이 기대됐으나, 2022년 프랑스 실질 경제성장률은 2.2% 내외로 예측되고 있음.

* EU, '22.9. 기준

- 2021년 기저효과에 힘입어 6.8%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형국
- 2022년 하반기 에너지 가격 상승을 둔화시키기 위한 프랑스 정부 대응이 계속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막기에 역부족

- 이러한 물가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이 2023년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 가계 구매력과 기업 경기전망이 악화되면서 실물경제 성장을 압박하고 있어서, 팬데믹 종식 이후 회복되고 있는 관광, 숙박 등 서비스 분야 성장효과를 상쇄
-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조달 차질로 생산 활동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제조업 분야의 위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나. 주요 경제 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	백만 명	64.7	64.8	65.0	65.1	65.3	65.4	65.6	65.7
명목GDP	십억 달러	2,470	2,597	2,794	2,732	2,636	2,957	2,914	3,185
1인당 명목GDP	달러	38,348	40,134	43,060	41,924	40,377	45,187	42,330	42,646
실질GDP 성장률	%	1.0	2.4	1.8	1.9	-7.9	6.8	2.2	1.3
실업률	%	9.7	9.1	8.7	8.2	7.8	7.7	7.2	7.0
소비자물가 상승률	%	0.3	1.2	2.1	1.3	0.5	2.1	5.5	3.2
재정수지 (GDP 대비)	%	-3.6	-3.0	-2.3	-3.1	-8.9	-6.4	-5.7	-5.1
총수출	십억 달러	521.2	559.7	613.3	597.4	504.7	619.2	762.1	812.2
(對韓 수출)	"	4.2	5.6	5.1	5.7	5.4	5.6	n/a	n/a
총수입	"	556.9	611.2	674.0	649.7	572.4	699.4	847.7	889.9
(對韓 수입)	"	2.7	2.8	3.6	3.8	3.4	5.4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35.7	-51.5	-60.7	-52.4	-67.7	-80.2	-85.6	-77.7
경상수지	"	-12.2	-18.0	-24.4	-8.2	-49.1	-17.7	-41.9	-34.9
환율 (연평균)	현지국/US\$	1.10	1.13	1.18	1.12	1.14	1.18	1.05	1.05
해외 직접 투자	억 달러	647	359	1056	386	442	n/a	n/a	n/a
외국인 직접 투자	억 달러	352	248	381	339	179	n/a	n/a	n/a

* 주: 2022년은 추정치, 2023년은 전망치 기입

* 자료: EIU, IMF, GTA(對韓 수출, 對韓 수입), 프랑스 통계청(환율), UNCTAD(투자)

2 2023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성장 정체
- ※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 ※ 프랑스 정부의 공급망 재편 가속: 제조업 및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 ※ 2024년 파리 올림픽 개최 준비 본격화
- ※ 기업 ESG 경영 강화에 따른 국내외 협력사 동참 요구

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성장 정체

■ 원전 가동 중단 및 지정학적 위기로 가스·전기 가격 급등

- 프랑스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낮은 편으로, 프랑스 송전망으로 공급되는 전력의 95%는 프랑스에서 생산되고, 75% 이상이 최종 소비에 사용된 후 수출되고 있음
 - 원전의 노후화로 전체 원전 절반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전력의 7%는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음
 - '22.8.말 프랑스 전기 도매가가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치솟았으며, 전문가들은 전기 가격이 '23년 최고점을 기록한 후 '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인상 제한, 제조업 지원, EU 차원의 협력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
 - (에너지 가격 인상률 동결) 프랑스 정부, '22년 말까지 프랑스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대 4%로 제한했으며, '23.2.부터는 최대 15%로 제한 예정
 - (제조업 지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금속, 화학 등 26개 분야 제조기업 대상 최대 5천만 유로 한도에서 에너지 보조금 지급
 - (EU 내 협력) 독일과 가스와 전기를 서로 주고받는 등 유럽 차원 공동 대응
 - (에너지 절약 캠페인) '24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10% 감소 목표 설정, 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방안 마련 촉구
- 에너지 가격 폭등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공급망 문제 또한 심화됨에 따라 '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전망
 - 프랑스 정부는 '23년 GDP 성장률을 1.4%로 전망했으나('22.7.), 이후 1%로 하향 재조정했으며, 0%대 저조한 GDP 성장률을 전망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있음

■ 프랑스 주요 기업의 에너지 위기 대응 현황

- 프랑스 정부, '24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10%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며 기업들에 에너지 절약방안 촉구
 - 공기업이 앞장서서 에너지 관리전략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의 위기에 가장 취약한 제조업, 농업,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음

〈프랑스 기업 및 산업별 에너지 위기 현황 및 전략〉

농식품	-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감 소 전략 플랜에 투자 집중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금액이 40%까지 증가했으며, 소비자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항공 (Airbus, Air France)	- 항공은 자동차, 철강 산업에 비해 에너지 위기 타격이 적은 편 - 프랑스 에어버스 공장의 경우 가장 타격이 큰 가스 사용분을 전기 사용으로 대체한다는 전략. 기업 내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나리오 준비 중. 툴루즈 공장의 경우 22,000m² 크기의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교체한 상태 - 에에 프랑스는 운항 항로 변경으로 에너지 소비 최적화, 경량 소재로 항공기 좌석 변경, 엔진 가동 시간 축소
유리, 화학, 철강 제조	- 에너지가 생산비의 30%까지 차지 - 장비를 소규모로 교체하거나 재활용 원료 사용 등으로 에너지비용 절약 - 정부의 에너지 절약방안으로 생산량 축소를 피할 수 없을 전망
수 처리 (Veolia)	'22.4.부터 2년 내 에너지 소비량을 5% 줄이고, 에너지 생산량을 5% 증가시키는 자체 에너지 절약안 'ReSource' 실시 * 1억 5천만 유로 투자 예상

자료: Les Echos 등 언론 보도 내용 종합

■ [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 및 진입 리스크]

-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비용 절감과 관련된 고효율 기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해당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가정용 태양광 패널, 열펌프 등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수요 증가 추세
 - 에너지 소비가 적거나 조절 가능한 가전제품 인기 예상

나.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 구매력 하락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 에너지, 서비스, 가공품, 식품 등 생활용품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으로 가계 소비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음
 - 프랑스 정부는 2023년까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총 200억 유로 규모 예산의 '구매력 보호법' 발의, 시행 중
 - * 저소득층 상여금 지급, TV 수신료 폐지, 임대료 인상 상한 적용, 유가 보조금 지급으로 단가 인하, 인플레이션 비율에 맞추어 사회보장수당 인상 등

〈프랑스 경제성장 및 물가지수 전망〉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질GDP 성장률	-7.9	6.8	2.3	1.2	1.7
소비자물가지수	0.5	2.1	5.6	3.4	1.9
소비자물가지수 (에너지, 식품 제외)	0.6	1.3	3.3	3.0	2.2

주: 2022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 '22.6.21. 발표 자료 기준

- 본격적인 고물가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소비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디스카운트 경쟁 심화 추세
 -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온라인 시장 또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물류, 보안, 결제 등 제반 인프라 및 기술의 차별화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

■ [우리 기업의 활용방안 및 진입 리스크]

- 소비자 구매 성향과 결정 기준의 변화에 대응한 마케팅 전략 필요
 - 최근 몇 년간 품질과 친환경성이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으며 고가의 바이오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면, 고물가 시대로 들어서면서 품질보다는 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추세
 - 소득 계층별 소비 패턴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세그먼트별로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프랑스 정부의 공급망 재편 가속

■ 원자재 공급망 훼손과 인플레이션 심화로 제조업 위기

-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로 공급망에 병목현상이 생기면서 수급 불안을 야기, 비용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원자재 공급망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부품 수급 문제로 조업 감축·중단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EU 및 프랑스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강화됨

■ 전략적 제조업 육성정책 가속화

- 마크롱 대통령, 300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으로 미래전략산업 발표('21.10.)
 - 2022년부터 5년간 300억 유로 투자 예정으로 2030년까지의 10대 목표 설정
 - 전기차 및 저탄소 항공기 등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에 40억 유로 투입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산업(혁신 원자로 개발, 재생에너지 등)에 80억 유로
 - * 소형 모듈 원전 분야와 청정수소 분야를 집중 육성 계획, 기존 탈원전 정책은 폐기로 전환
 - 식품산업 혁신 및 자급력 강화, 바이오 의약품, 문화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유도

- 기존에 진행하던 생산세 감세 외에도 소득세 감세, 사회 분담금 감면 등 프로젝트별로 맞춤형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 촉진
- 경제부 장관, 해외 기업의 프랑스 진출 및 정착 시 준비에 필요한 기간(평균 17개월)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 계획 시사('22.9.1. 경제부 장관)
- 정부 정책의 효과로 완성차 제조기업(Renault, Stellantis), 반도체 제조기업(GlobalFoundries, STMicroelectronics)의 프랑스 내 투자 발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참고: 특별구역 세제 및 사회 분담금 감면 제도〉

- * (ZFU-TE: 특별구역 고용기업 세제 감면) 정부가 지정한 31개의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 중 직원의 50%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 소득세의 20~100% 감세 혜택 부여
- * (ZRR: 농촌 활성화 지역 고용기업 사회 분담금 감면) 제조, 상업, 농업 기업 대상, 정부가 지정한 프랑스 전역의 활성화 필요지역 중 최소한 한 곳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 최장 12개월간 고용에 따른 사회 분담금 감면

■ [우리 기업의 활용방안 및 진입 리스크]

■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랑스 정부의 투자 증가

- 반도체, 전기차 등 제조업 기업에 부여하는 프랑스 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활용 필요
- 반도체, 배터리 등 경쟁력 우위에 있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의 방식으로 진출 가능성 모색 필요

라. 2024 파리 올림픽 개최 준비 본격화

■ 파리 올림픽 개최 임박, 본격적인 공사 진행 중

- '23년 말까지 파리를 중심으로 올림픽 경기장 건설 및 도심 주변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건설공사 가속화
 - 현재 파리 시내 5,000여 곳의 현장에서 공사 진행 중
 - 파리시 인근 북부 지역에 올림픽 선수촌(50헥타르 규모)과 수영장 등 건설
 - 파리 중심과 주변 지역을 잇는 지하철 신규 노선, 두 개의 국제공항(샤를 드골, 오를리)과 파리 도심을 연결하는 고속 지하철 노선 구축
 - 파리와 파리 주변 지역에 대대적인 자전거 도로 건설 중

- 그랑 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파리와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건설 프로젝트도 계속될 전망
 - 2014년 시작해 2030년 완공 목표, 총 사업비 300억 유로 이상 투입
 - 총 연장 200km 이상, 72개의 지하철역이 신규 건설될 예정
 -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11호선과 14호선을 파리의 북쪽과 남쪽의 외곽도시까지 연장
 - 지하철 4개 라인 새롭게 개설 예정
 - * 파리를 둘러싸는 15호선, 파리 북쪽 도시를 잇는 16호선, 샤를 드골 공항과 파리 북쪽 생드니시를 잇는 17호선, 오를리 공항과 베르사유시를 잇는 18호선 설치 계획

〈참고: 그랑 파리 프로젝트 (Projet Le Grand Paris)〉

- 2008년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기간 구상되어 2013년 의회 의결을 통해 정책 시행 착수
- 파리 도심 및 도심-교외지 간 대중교통 연결성 강화,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위한 낙후 지역 개보수 건설 프로젝트 및 관련 인프라 시설 개선을 목표로 한 Ile-de-France 지역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도시 현대화 프로젝트 지칭

■ [우리 기업의 활용방안 및 진입 리스크]

- 건설·건축 자재 및 기계·방비 등 특수(特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 1차 기본공사 끝나고 '23년부터 2차 세부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관, 페인트, 전기시설 등에 필요한 품목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

마. ESG 경영 강화에 따른 국내외 협력사 동참 요구

■ 기업 ESG 경영 정착을 위한 프랑스 정부 및 EU 차원 정책

- 프랑스 정부, 생산기업뿐만 아니라 투자회사 및 투자기관 모두 ESG 관련 내용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전방위적인 ESG 도입 유도
 - 신 경제규제법(2001) : 대기업들은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고 연간 보고서에서 기업 활동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영향 포함시키게 됨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2015) : 금융사 및 공공기관의 투자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질적 기준을 투자 원칙에 포함하고, 에너지 및 생태 전환에 기여하는 여러 조치를 도입하도록 함
 - 유럽연합 차원의 '지속가능 금융공시규제(2021)' : 유럽연합 역내 금융 서비스 기관으로 하여금 투자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하여 기후 및 기타 환경 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 사회/노동자/인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 등의 정보 공시 의무화
 - 대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연간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게 됨

■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규제 및 지원 다각화

- 내연기관 자동차 규제 강화를 통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축소 유도
 - '35년부터 유럽연합 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결정에 적극 협조
 - '20년부터 국제표준 자동차 연비 측정 시스템인 WLTP 시스템을 도입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그 배출량 기준을 해마다 줄여나감으로써 내연기관 자동차에 탄소세를 추가 부과
 - '22년부터는 SUV 등 중형차 규제 위해 자동차의 무게 역시 탄소세 부과 기준에 포함시킴
- 미래투자전략 'France 2030', 미래투자프로그램 'PIA',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 'France Relance' 등 국가산업지원 계획 전반에서 친환경 및 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주제로 선정, 기업들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
 - France 2030 : 탈탄소 프랑스 건설을 위한 에너지 분야에 80억 유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저탄소 비행기 등 미래 교통수단 개발에 40억 유로 지원
 - PIA : 현재까지 4기 PIA 진행 중으로, 녹색에너지,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 기술 개발에 340억 유로 지원

■ [우리 기업의 활용방안 및 진입 리스크]

- 프랑스 기업 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노력이 기업 활동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글로벌 협력사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추세
 - 원자재에서 물류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협력사들과의 계약 시 이와 관련된 조항이나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기업 증가
 - 글로벌 기업들과의 원활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ESG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필요



2023

프랑스 진출전략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마크롱 2기 정책 방향 관련 국회, 기업 등과 갈등·대립 확대 여지
- ※ (경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구매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 전망
- ※ (산업)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 투입 확대
- ※ (정책) 친기업 정책 및 친환경 규제, ESG 중요성 확대, 스타트업 지원·육성

가. 정치 환경

■ 마크롱 대통령 2기 정부의 정책 방향

- 마크롱 대통령의 연임으로 기존의 산업, 통상, 투자정책 기조가 유지될 전망
 -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중임제 형태
 - 향후 2기 집권 기간(2022~2027) 중 국방, 교육, 의료 등 취약 분야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더 많이 일하는 프랑스'를 기치로 한 친기업·투자 노동 및 복지 제도 개선이 지속될 전망
 - (산업) 에너지,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우주·해양 등 미래전략산업에 투자 확대
 - (에너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절충, 집권 1기 당시의 탈원전 기조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절충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
 - (對기업 정책) 기업부가가치부담금(CVAE) 폐지, 법인세 인하, 행정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등의 친기업 정책으로 프랑스 투자 진출 여건 개선 전망
 - (외교) EU 회원국 간 연대 강화, 쉥겐 지역 국경 강화 및 NATO 협력 강화 등

〈마크롱 2기 정부 주요 방향 및 정책〉

정책	세부내용
기후·환경 정책	◦ 원자력과 그린에너지 절충으로 '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 EPR2 타입 원자로 6기 건립 및 8기 추가 건립 검토. 노후 원전 폐쇄 시기 재검토 - '50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 10배 확대, 해상 풍력 발전소 50개 이상 건설 - '30년까지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분야 리더로 도약 - '30년까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200만 대 생산, 저탄소 항공기 개발 - 저소득층 친환경차 구입 지원책으로 월 100유로 이하 '리스 제도' 도입 - EU 차원의 탄소 국경세 도입 - 기존 주택의 친환경 에너지화 수리공사 지원 (한 해 최소 70만 채) - 기업의 ESG 실천도에 따라 경영인 급여체계 달라질 수 있도록 의무화 - 향후 10년간 최소 1억 4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 목표
외교 및 국방 정책	◦ EU의 산업적 주권 강화 - 가스, 휘발유 등의 역외 수입량 축소를 위해 저탄소, 클린에너지 발전 가속화 - 클라우드 등 국가 주요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기술적 주권 강화 ◦ EU 및 프랑스 국방 강화 - EU 자체 방위력 증강, 생겐 지역 국경 강화 위해 협의체 창설 - 프랑스 GDP 2%를 국방예산으로 투입, '30년까지 전투기 60대, 핵잠수함 5대, 장갑차 1,250대 구비 등 군 장비 최신화, '27년까지 예비군 인력 두 배로 증강
경제 및 조세 정책	◦ 친기업 정책 및 감세 정책 지속 - 기업에 부과되는 생산세 중 하나인 지역분담금(CVAE) 폐지(약 70억 유로 규모) - 세금 납부 시스템 간소화로 60여 개의 요금 폐지 - 임금노동자 사회보장 분담금 일부 폐지(1인 한해 200유로 규모) - TV 시청료 폐지 - 상속세 감면 상한선 15만 유로까지 확대 및 감면 대상 상속 가족 범위 확대 ◦ '더 많이 일하는 프랑스'를 기치로 노동시장 개혁 - 연금 수령을 위한 법적 정년 연령 연장(62세→65세) - 청년층 '장기 비소득자 정부지원금(RSA)' 수급자, 주당 최소 10~20시간 노동 의무화 ◦ 마크롱 인센티브(Prime Macron) 인상 - 최저임금의 3.5배 이하 소득자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로 현재의 세 배로 증액

정책	세부내용
산업 정책	◦ 제조업 강화 정책 - 우주항공, 바이오의약품, 원자로 등 국가 전략 제조업 분야 지속적 지원 - '30년까지 반도체 및 전자부품 생산량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해 유럽 시장 점유율 20% 달성 목표('21년 10%) - 주요 의약품 제조공장 프랑스 국내로 재유치(리쇼어링) 지원 ◦ 식량 독립을 위한 농업혁명 - 생산 인력 노후화에 따른 젊은 인력 투입, 교육 강화 - 디지털, 로봇 등 기술적 혁신에 투자 ◦ EU 공동 메타버스(metavers) 구축 - 미술관, 문화재, 예술작품 등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도록 투자 - 창작자 저작권, 저작권접권 보호 시스템 구축
디지털화 정책	◦ 국가 전반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 12세부터 정규교육 과정에 코딩 수업 포함 - 전국적 행정 시스템 디지털화 가속 - 국민들의 일상적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20,000여 명의 도움 인력 배치 - '25년까지 프랑스 전 국토에 광케이블 보급률 100% 달성 목표로 예산 배정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기술 도입, 보건의료 디지털 프로젝트 중점 추진
사회복지 정책	◦ 퇴직연금 최소금액 한 달 1,100유로 보장 ◦ 월세 보증금 국가 지원책 확대 ◦ 소외지역 대상 교육시설, 행정시설 건립 ◦ 의료시설 부족지역 시설 확충 공사 - '27년까지 요양병원 간호사 및 간호보조사 5만 명 추가 채용
기타	◦ 이민법 강화 - 비즈니스 목적자 혹은 프랑스어 시험 통과자에게만 장기체류비자 부여 - 사회적 동요를 일으키는 외국인 추방 가능

자료: 마크롱 대통령 공약집('22.3. 발표), 프랑스 언론 보도 종합

■ 집권 여당의 국회 의석 과반 확보 실패로 국정 운영 난항 예상

● 총선 결과('22.6.19.) 집권 여당 득표율 저조, 좌파 연합과 극우 정당 약진

-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포함된 범여권 38.5% 득표
- 제10야당, 131석(31.6%)을 득표한 '뤼프(NUPES)'는 좌파 연합으로,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당(LFI), 녹색당, 사회당의 연합
- 제20야당은 89석(17.3%)를 차지한 극우당인 국민연합(RN)이 차지

〈프랑스 총선 결과〉

정당	의석 수	비율 (%)
앙상블(Ensemble), 집권 여당, 중도	245	38.6
뤼프(NUPES), 좌파 연합	131	31.6
국민연합(RN), 극우	89	17.3
공화당(LR), 보수	61	7
기타 좌파(Divers Gauches)	22	2.1
기타 우파(Divers Droite)	10	1.1
기타 중도(Divers Centres)	4	0.5

자료: 프랑스 내무부

● 프랑스 의회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거의 일치하는 만큼, 야당과의 협치가 마크롱 2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음

- 우리 기업의 프랑스 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미래 제조·에너지 산업 정책 법안은 1기 정부에서 대부분 통과된 상황
- 마크롱 대통령이 2기 정부의 과제로 강조해왔으나 국민 여론의 반대가 심한 '62세 퇴직 연령 64세 상향 개혁안', '실업수당 개혁안' 등은 특히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정부가 헌법 49-3조항을 이용해 국회의 의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반대 시위, 파업 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나. 경제 환경

■ 인플레이션 압박과 구매력 위기

- 서비스 산업의 재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교란으로 실질 경제성장률 침체 전망
 - '22년 GDP 성장률은 평균 2.2%로 예상되며, '23년 GDP 성장률은 약 1.2~1.4%로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2년 러-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으로,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았던 원자재 공급망 문제가 심화되어 제조업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금리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경우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급등에 따른 구매력 하락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재활성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은 침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프랑스 정부, 주요 연구소 및 기관의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명	발표 시기	2021	2022년 전망	2023년 전망
IMF	2022.4.	6.9	2.9	1.3
EC(유럽연합)	2022.7.	6.8	2.4	1.4
BdF(프랑스 중앙은행)	2022.6.	6.8	2.3	1.2

자료: IMF, EC, BdF

〈프랑스 정부, 주요 연구소 및 기관의 인플레이션 전망〉

기관명	발표 시기	2021	2022년 전망	2023년 전망
IMF	2022.4.	2.0	4.0	1.7
EC(유럽연합)	2022.7.	2.1	5.9	4.1
BdF(프랑스 중앙은행)	2022.6.	2.1	5.6	3.4

자료: IMF, EC, BdF

- 프랑스 정부, '22년 하반기부터 '23년까지의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우려로 '구매력 보호법' 시행
 - 총 2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실질소득 인상, TV 수신료 폐지, 임대료 인상 상한 적용 등 포함
 -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임금 3.5% 인상 등 가계 수입 보존 조치

〈프랑스 구매력 보호법 주요 내용 ('22.하반기부터 시행)〉

전기요금 인상을 제한	'23년 인상을 15% 상한선 유지
TV 수신료 폐지	'22년부터 소급 적용으로 1가구당 138유로 절약 효과, 정부 예산 35억 유로 규모
퇴직연금, 실업수당 등 인상	인플레이션 비율(4%)에 맞추어 사회보장수당 인상
임대료 인상 상한 적용	'23.6.30.까지 프랑스 전역 상가 임대료 인상을 3.5%로 제한 (직원 250명 이하 기업)
기업 비과세 보너스 인상 및 소득세 공제	직원당 3,000유로까지 보너스 비과세 적용. 최저임금의 3배 이하 급여 소득자(약 4,000 유로)에 한해 소득세 공제
저소득층 보너스 지급	총 800만 가정에 성인 1인당 100유로, 아동 1인당 50유로 지급

자료: 프랑스 경제부

다. 산업 환경

■ 프랑스 정부, 전자산업 육성을 통한 공급망 확보 위해 대규모 투자 진행

- 아시아로부터의 자립을 목표로, 전자부품 산업에 160억 유로 투자 발표('22.9.)
 - 전자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 전역 8개 지역에 10여 개의 신규 공장 건립 지원, 향후 5년 내 프랑스 전자부품 생산량 30% 증가 목표
 - 연구개발에 8억 유로, 전자부품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 5천만 유로 투입, 3년 내 18,000명 인력 고용 계획
 - 반도체의 경우 생산량 90% 증가로 아시아 의존도 감소 목표, STMicroelectronics의 경우 57억 유로 규모의 투자로 2026년까지 현재의 두 배 생산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전기자동차) EU 차원의 CO2 규제에 완성차 기업들 전기차 생산체계로 전환

- 2040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전기자동차 판매율 급증
 - '22.5. 기준, 프랑스 자동차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19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으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 에너지원 종류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보면, 휘발유 자동차 37.7%, 디젤 16.6%, 하이브리드 자동차 20.1%, 전기차 11.9% 순
- 내연기관 자동차 점유율은 매년 감소, 친환경 자동차 점유율 증가 추세

■ 프랑스 북부지역 전기차 생태계 조성

- 프랑스 북부 Hauts-de-France 지역에 분포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체계의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 유럽 자동차 생산의 절반(50%)이 Haut-de-France 지역의 반경 600km 이내에서 이루어짐
- 글로벌 기업 3개 사(Toyota, Renault, Stellantis)의 7개 공단 위치, 납품 협력사, 서비스 기업 등 550여 개사에서 56,000여 명 종사
 - * 르노는 2022년 1월부터 기존에 있던 오-드-프랑스 지역 내 3개의 공장을 재통합, Electricity라는 명칭으로 유럽 최대 전기차 생산 에코 시스템 구축(진행)

■ (전기차용 배터리) 전기차 수요로 생산 증가, GVC 문제로 공급량 부족

■ 전기차 배터리 수요와 생산 현황

- EU 배기가스 규제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공급은 한국 등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음
- 향후 배터리 공급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배터리 연합(EU Battery Alliance)이 지난 2017년 출범, EU는 12개 회원국이 참여한 29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기술혁신 투자 프로젝트를 '공동 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로 지정
 - * 프랑스는 IPCEI에서 15억 유로를 차지, '23년부터 가동 예정된 프랑스 북부 지역의 배터리 프로젝트 3개

■ 프랑스 완성차 기업 배터리 프로젝트 현황

- (Renault) 중국의 Envision사와 협력해 프랑스 북부 지역에 30억 유로 투자, 2030년까지 24GWh 생산 목표로 2023년부터 가동 예정. 프랑스 북부, Renault사가 구축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생산 공단 Electricity 내 건립
- (Stellantis) Total Saft사와 배터리 생산기업 ACC 설립, 프랑스 북부에 배터리 공장 건설 중, 2023년 말~2024년 초부터 공장 가동 시작 전망, 2030년까지 32GWh 생산 목표
- (Verko)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에 배터리 공장 건립, 2025년 가동 예정, 2030년까지 50GWh 생산 목표

■ (반도체) EU의 'Chips Act' 플랜 일부로 프랑스 투자 유치 성사

■ 프랑스 정부, 2030년까지 전자부품 생산 확대 목표 설정 후 투자 유치 활발

- 프랑스 2030 투자계획 예산의 20%인 60억 유로 투입해 반도체 포함 전자부품 생산량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 목표
- 반도체 생산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 규모가 큰 만큼 유럽연합 차원에서 협력하며 함께 투자할 계획
 - * EU 반도체법(EU Chips Act) : 유럽의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 2월 8일 발표된 미래 반도체 산업 계획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및 대규모 생산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을 복합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 미국의 GlobalFoundries, 프랑스 그르노블 제조공장에 투자 발표('22.7.)
 -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 GlobalFoundries, 프랑스·이탈리아 반도체 생산기업인 STMicroelectronics와 함께 프랑스 그르노블에 반도체 제조공장 설립
 - 양사는 프랑스 정부의 대규모 금융 지원을 받게 되며, 총 57억 유로로 규모가 큰 만큼 EU와 협력해 함께 투자할 방침
 - 새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자동차뿐 아니라 IoT, 통신 인프라 산업에 공급될 예정
-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 등이 포함된 통신 안전 솔루션(SCS) 산업단지는 이탈리아와 가까운 프랑스의 동남쪽 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음
 - 프랑스-이탈리아계 STMicroelectronics사 공장은 프랑스 중동부 지역의 그르노블(Grenoble)에 위치

■ (소비재)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 화장품 소매 유통의 옴니 채널 가속화
 - 프랑스 소비자의 보수적인 습성과 직접 체험이 중요한 코스메틱 제품의 특성으로 프랑스에서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 선호도가 높은 편
 - 팬데믹 기간 동안 뷰티/퍼스널 케어 제품의 온라인 판매량 급증으로 온라인 채널 인프라 발달, 인플레이션에 따른 절약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보 습득 후, 온라인 채널에서 최저가로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 급증
- 소비자 구매력 중심의 유통 채널 전략 변화
 - 대형 유통 채널들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홍보 활발
 - 기존에 묶음으로 판매하던 상품들을 낱개로 판매하거나, 다음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등을 발행. 대형 유통 체인 C사의 경우 기한을 두고 생활필수품 가격 동결정책 시행 중
 - 결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 감소를 위해 수표로 결제하면 한 달 후 결제되는 후불 시스템 등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라. 정책·규제 환경

■ 탄소 국경세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프랑스는 '21년 WTO에 유럽 탄소 국경세에 관한 자국의 제안을 제시하고 실무 그룹 발족을 발표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 견지
 - 탄소 국경세는 탄소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해 EU 역내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역외 국가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과세하는 제도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 대상 품목의 수입업자(신고자)가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 1톤당 인증서 1개를 구매 및 제출 의무

- * 수입량,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 원산지 지불 탄소가격 등의 정보가 담긴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도기간(2023.1.1.~2025.12.31.)을 거친 후, 2026.1.1.부터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을 의무화하며 본격 시행 예정

〈(참고) 프랑스 탄소세 부과 현황〉

- 프랑스는 2014년부터 국내에서 탄소세를 부과해왔음. 제품의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해당 제품의 판매 시 제품 가격에 더해서 부과하는 소비세(domestic consumption tax) 성격
- 에너지 제품 소비세(TICPE), 천연가스 소비세(TICGN), 석탄 소비세(TICC)로 구성, 화석연료(휘발유, 중유, 천연가스, 석탄) 관련 소비가 주요 과세 영역이며 2030년까지 배출 탄소 1톤당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 제품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4년 기준: CO2 1톤당 7유로 → 2022년 기준: CO2 1톤당 86.2유로)

■ 플라스틱 전면 퇴출을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사용 금지 로드맵 가동 중

- *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금지법(Loi anti-gaspillage) 발효(2021.1.1.부)
- ('21) 1월 1일부터 스트로, 식품용기, 컵 덮개, 폴리에스티렌 음식 포장재, 이쑤시개 등 생활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 전면 금지. 상점(곡물, 향신료 등)에서 구매자의 개인 포장용기 사용 허용 의무화, 기업 내에서 일회용 생수병의 무료 배포 금지
- ('22.1.) 1.5kg 이하의 과일과 야채 판매 시 비닐봉투 사용 금지, 플라스틱 티백(茶) 및 패스트푸드 체인의 플라스틱 완구 배포 금지, 모든 공공기관 내 정수기 설치 의무화
- ('23.1.)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 금지
- ('24.1.) 마이크로플라스틱이 포함된 의료장비, 의료기구 판매 금지
- ('25까지) 플라스틱의 100% 재활용

● 친환경 인식 재고와 재활용 장려를 위한 표시 및 정보공개 의무 강화

-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 문구와 로고를 반드시 표기
- '22.1.부터 내분기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제조사는 이를 반드시 공지해야 하고, 통신사의 경우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지해야 함
- '22.1.부터 신제품 구매 시 2년, 중고제품 구매 시 6개월의 품질보증 기간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공지 의무

■ 디지털 콘텐츠 규제 입법

- 프랑스 의회, '21.6. 디지털시대의 문화 콘텐츠 접근에 대한 보호 및 규제 법안(Loi relatif à la régulation et à la protection de l'accès aux œuvres culturelles à l'ère numérique) 채택
- 저작권 보호, 규제 보완, 자국 영화 및 영상물 보호 등이 주요 골자로 자국의 문화 주권을 강화시킨다는 목적

《참고》 디지털시대 문화 콘텐츠 접근에 대한 보호 및 규제 법안 주요 내용》

- (감독기구 일원화) 기존의 온라인 감독기구(Hadopi)와 영상고등의회(CSA)를 합병해 디지털 영상 및 정보통신 감독기구(Arcom)를 창설. 기존의 감독기구들보다 더 많은 조정 권한을 갖게 되며,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와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임무를 부여
- (문화주권 강화) 글로벌 플랫폼의 프랑스 방송시장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영상 플랫폼들로 하여금 프랑스 국내 영상 플랫폼 영업 매출액의 20%를 프랑스 국내 콘텐츠 제작 및 복원과 유럽 국가의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하도록 규정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촉진

- 프랑스 정부는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체결 후속 일련의 입법 과정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 및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준을 도입하고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 '21.3.부터 EU 차원에서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제(SFDR)를 시행, 금융·서비스 기관의 투자 및 상품 관련 지속가능 정보 공시 의무화
 - * 사회, 노동,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UN 및 OECD 지침 위반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임금격차 기업에 대한 투자, (생)화학 제조 판매 기업 투자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

《참고》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LTECV)》

- 프랑스의 대표적 ESG 입법 사례('2015)로 꼽히며,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 에너지 가격 경쟁력 유지 및 비용 감소, 공공보건 및 삶의 질 개선 등 목표
- 보험사, 공제조합, 가변자산 투자회사 및 각종 공공기관의 투자 시 i) 투자 원칙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질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키고, ii) 에너지 및 생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도입하여 연간보고서에 i), ii)의 내용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

- 프랑스 금융업 분야 ESG 참여 확대·심화 사례
 -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ESG 정도를 평가
 - AXA 그룹의 경우 투자자로서 AXA 펀드 자산의 탄소발자국을 2025년까지 20% 이하로 감소, 녹색 투자 규모를 2023년까지 260억 유로 규모로 인상, 보험사로서 녹색 보험 상품 2023년까지 13억 유로 규모로 확대할 목표를 발표
- 프랑스 기업들, 글로벌 협력사들에게도 지속가능 경영 동참 요구 추세
 - (제약회사 Sanofi) 밸류 체인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원자재부터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까지 생산, 유통, 보관, 사용, 폐기에 관여하는 모든 공급사들이 지속가능 경영 원칙에 동참하는 것이 필수가 됨

- (완성차 제조기업 Renault) 공급사들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협력사의 하청업체까지 '환경 책임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는 추세.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CSR 평가를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
 - * 르노사는 ESG 기준에 따른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전기자동차 개발을 주력사업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0% 감축 추진 중
- (완성차 제조기업 Stellantis) Tier 1 공급사 선정 시 프랑스의 친환경 전문 컨설팅 기업이 마련한 기준(환경, 노동자, 윤리, 하청 공급사 등 종합 평가)을 통해 계약 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모든 협력사들은 '글로벌 책임 구매 가이드라인'에 동의해야 하고, 공급사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Stellantis는 향후 개선계획 제출 및 문제 개선 진척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모든 거래를 중단할 수 있음
 - * 글로벌 책임 구매 가이드라인 : 인권 보호 준수 등 사회적 일반원칙 이행, 환경보호, 윤리적 원칙(금지 물질 사용 금지, 동물 복지 등) 이행, 법률적 이행(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 등), 지역의 중소 공급사에 교육 등 지원, 지속가능한 조달(공급사의 공급사나 하청업체 관리에서의 CSR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김

■ 스타트업 지원·육성 지속으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

- 프랑스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을 비롯해 대표기업(Next-40/120)을 선정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음
 - 2만여 개에 달하는 프랑스 스타트업 중에서 성장성이 유망한 120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해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고, 유니콘 기업 40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마크롱 대통령의 스타트업 강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반영하여 국가 브랜드(La French Tech) 육성 정책이 지속되면서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
 - 프랑스 정부는 해외 기업 및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창업하려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및 예술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비자제도 운영 중
 - * 프로젝트 심사 후 선정되면, 4년 기한의 체류증 발급 등 우수 스타트업 자국 유치에 적극적
- 2021년 기준, 프랑스 스타트업 투자 유치는 총 784건(+26%), 금액 116억 유로(+115%), 12개 유니콘 탄생 등 사상 최고 성과 경신

〈프랑스 유니콘 현황〉

연번	스타트업(설립연도)	분야	유니콘 선정
1	Alan('16)	보험 서비스	2021
2	Ankorstore('19)	리테일	2022
3	Back Market('14)	마켓플레이스	2021
4	BlaBlaCar('06)	공유 교통 서비스	2015
5	Contentsquare('12)	마케팅 분석	2021
6	Deezer('07)	음악 스트리밍	2018
7	Dental Monitoring('14)	의료	2021
8	Doctolib('13)	의료	2019
9	EcoVadis('07)	ESG 평가 시스템	2022
10	Exotec('15)	로봇	2022
11	IAD('08)	건설	2021
12	Ivalua('00)	IT	2019
13	Ledger('14)	가상화폐, NFT	2021
14	Lydia('11)	핀테크	2021
15	ManoMano('12)	마켓플레이스	2021
16	Meero('14)	마켓플레이스	2019
17	Mirakl('11)	리테일	2020
18	OVHcould(1999)	데이터	2017
19	PayFit('15)	핀테크	2022
20	Qonto('17)	핀테크	2022
21	Shift technology('13)	보험	2021
22	Sorare('18)	NTS, 가상 엔터테인먼트	2021
23	Spendesk('16)	핀테크	2022
24	Swile('16)	직장인 복지카드	2021
25	Veepee('01)	마켓플레이스	2015
26	Vestiaire collective('09)	마켓플레이스	2021
27	Voodoo('13)	비디오게임	2020

자료: BDM

2

시장 분석

- ※ 세계 7대 경제 규모의 유럽 2대 시장, EU 진출 거점으로서 전략적 중요성
- ※ '22년 상반기 에너지 및 원자재 고갈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 정유 수입 증가
- ※ '21년 對프랑스 외국인 투자 전년 대비 32%가 증가, 역대 최대 기록 경신
- ※ 원자력,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정부 및 기업 투자 크게 증가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7대 경제 규모

- 프랑스는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세계 7대 및 유럽연합(EU) 2대 산업과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자·양자 통상 이슈와 협상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1년 기준, GDP 순위 세계 7위(2.9조 달러)

〈2020년 세계 GDP 순위〉

(단위: 달러)

국가(순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인도	7위 프랑스
명목GDP	22.9조	17.7조	4.9조	4.2조	3.2조	3.1조	2.9조

자료: World Bank(2022년 7월 발표 기준)

- 환경·화학·기계 등 제조업 분야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 다수 포진
 - 석유, 화학, 금융, 자동차, 우주항공 부문 글로벌 포춘 500 포함 기업 26개('21. 기준)
 - * 독일 30개, 영국 18개, 한국 16개, 스위스 14개, 네덜란드 11개
- 2020년 World Bank가 창업 환경, 건축 허가 현황, 전력 인프라 수준, 금융 조달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전 세계 109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한 결과, 프랑스가 32위를 차지
 - (행정절차의 계약 이행도 3위) 계약 이행 및 심사 이행 소요기간, 법적 비용 규모 등을 기준으로 평가. 1위 오스트리아, 2위 독일, 3위 프랑스, 4위 미국, 5위 스페인 순
 - (창업환경 5위) 창업절차의 복잡성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 비용, 최소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평가. 1위 영국, 2위 아일랜드, 3위 네덜란드, 4위 핀란드, 5위 프랑스 순

■ EU 진출 거점으로서 전략적 가치

- 유럽(EU) 교역·물류의 중심으로 역내를 비롯한 아프리카, 중동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고밀도 교통 인프라 보유
 - 교통 인프라 유지·보수 및 확충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자도 증가 추세
 - * 2020년 GDP의 3.6% 규모 투자. 미국은 3.3%, 영국 2.9%, 독일 2.5% 수준 (자료: OECD)
- 고속도로 화물 수송량은 1,796억 톤-킬로미터 규모로, 유럽 내 4번째 규모(폴란드→독일→스페인→프랑스 순)
 - 고속도로 총 연장 11,000km, 철도 30,000km, 해로 5,000km 등
 - 파리 북쪽 샤를 드골 공항은 유럽 27개국 중 화물 수송량 1위이며, 승객 수 기준으로 런던 히드로 공항에 이어 유럽 2위
- 프랑스의 10대 주요 교역국 중 미국,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8개국이 유럽 국가로 역내 교역 비중이 높은 편, 현지화를 통한 진출 효율적
 - 보수적 구매 관행으로 인해 초기 진입이 어려운 바, 사전 조사 및 기획 분석 필요
 - 역외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 포착, 품질과 기능 차별화로 틈새시장 공략 유효

〈2021년 프랑스의 주요 수출입 대상 국가〉

(단위: 억 달러, %)

국가명	수입(증감률)(순위)	수출(증감률)(순위)	교역(증감률)(순위)
독일	1,198(+18.8%)(1위)	816(+17.3%)(1위)	2,015(+18.1%)(1위)
벨기에	761(+36.0%)(2위)	446(+24.0%)(3위)	1,207(+31.3%)(2위)
네덜란드	634(+26.7%)(3위)	236(+27.9%)(8위)	870(+27.0%)(5위)
이탈리아	594(+22.3%)(4위)	463(+25.2%)(2위)	1,058(+23.5%)(3위)
스페인	559(+21.7%)(5위)	434(+22.2%)(4위)	993(+21.9%)(4위)
중국	480(+16.9%)(6위)	283(+41.0%)(7위)	764(24.8%)(6위)
미국	309(+12.6%)(7위)	411(+11.2%)(5위)	721(+11.8%)(7위)
영국	233(+6.2%)(8위)	332(+7.2%)(6위)	565(+6.7%)(8위)
스위스	187(+14.5%)(9위)	200(+22.1%)(9위)	388(+18.2%)(9위)
폴란드	173(+24.0%)(10위)	141(+32.6%)(10위)	315(+27.8%)(10위)
한국	54(55.1%)(22위)	562(+2.5%)(21위)	110(+22.9%)(21위)

자료: GTA(방산물자 포함, 수출 FOB, 수입 CIF 기준)(2022년 5월 기준)

나. 수출

■ 최근 동향

- 코로나19 3차 락다운이 있었던 전년 동기에 대한 기저효과로 '22년 상반기 교역 및 수출입 수치 급증
 - (수입) 최근 5년간('18~'22년 7월까지) 프랑스 수입액의 흐름을 살펴보면,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 후 '21년부터 회복세를 넘어 크게 증가하는 추세
 - * '20년 5,812억 달러 → '21년 7,140억 달러로 약 22.8% 증가
 - (수출) 최근 5년간('18~'22년 7월까지)의 프랑스 수출액의 흐름을 살펴보면, '21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후 '22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20년 4,886억 달러 → '21년 5,846억 달러로 약 19.6% 증가

〈최근 5개년 대외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증감률)	2019(증감률)	2020(증감률)	2021(증감률)	2022.7.까지 (증감률)
수출	582,203(8.7)	570,957(-1.8)	488,619(-14.5)	584,685(+19.6)	361,423(+6.8)
수입	676,422(9.1)	654,668(-3.3)	581,288(-11.0)	714,002(+22.8)	475,187(+16.8)
교역	1,258,626(8.7)	1,225,626(-2.7)	1,069,907(-12.6)	1,298,687(+21.4)	836,611(+12.3)
수지	-94,219(12.6)	-83,710(-11.1)	-92,669(+12.5)	-129,316(+39.4)	-113,764(+65.6)

자료: GTA(방산물자 포함, 수출 FOB, 수입 CIF 기준)(2022년 11월 기준)

■ 프랑스 수출입 동향

- 주요 수입국
 - 프랑스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유럽 주변국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유일하게 주요 10위권 내 수입 대상국에 속함
 - 특히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벨기에, 러시아로부터의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프랑스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은 '21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요 경쟁국별 프랑스 수입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7.까지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독일	18.15	1	17.58	1	17.34	1	16.8	1	15.4	1
벨기에	10.18	2	9.78	2	9.60	2	10.7	2	11.2	2
네덜란드	8.10	3	7.97	4	8.63	3	8.9	3	8.4	3
이탈리아	8.01	4	8.06	3	8.35	4	8.3	4	7.7	4
스페인	7.12	5	7.14	5	7.90	5	7.8	5	7.6	5
중국	5.26	6	5.49	7	7.06	6	6.4	6	6.7	6
일본	1.05	19	1.05	19	0.97	18	1.0	18	0.7	21
한국	0.54	30	0.58	30	0.60	27	0.7	22	0.7	22
베트남	0.68	27	0.66	27	0.68	24	0.6	28	0.5	30

자료: GTA(2022년 11월 기준)

〈프랑스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7.까지
프랑스 총 수입액	676,423	654,668	581,289	714,002	782,361
對한국 수입액	3,663	3,813	3,490	5,412	6,111
한국 점유율 (점유율 순위)	0.54 (30위)	0.58 (30위)	0.60 (27위)	0.76 (22위)	0.78 (22위)

자료: GTA(방산물자 포함, 수출 FOB, 수입 CIF 기준)(2022년 11월 기준)

■ 주요 수출국

- 프랑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주변국이며, 특히 독일로의 수출이 1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미국과 중국이 역외 국가 중 주요 수출국에 속하며,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수출 점유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프랑스 수출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은 약 1%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 유지

〈주요 경쟁국별 프랑스 수출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7.까지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독일	14.4	1	13.7	1	14.2	1	13.9	1	13.9	1
이탈리아	7.4	4	7.4	3	7.5	2	7.9	2	8.5	2
벨기에	7.0	5	6.8	5	7.3	4	7.6	3	7.9	3
미국	7.7	2	8.2	2	7.5	3	7.0	5	7.6	4
스페인	7.7	3	7.3	4	7.2	5	7.4	4	7.6	5
중국	4.2	7	4.1	7	4.1	7	4.8	7	4.1	8
일본	1.3	12	1.5	12	1.3	13	1.3	14	1.2	13
한국	0.8	23	1.0	20	1.1	18	0.9	21	0.9	21
홍콩	1.2	13	1.1	16	1.2	14	1.0	20	0.8	24

자료: GTA(2022년 11월 기준)

〈프랑스 수출시장 내 한국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7.까지
프랑스 총 수출액	582,203	570,957	488,619	584,685	607,954
對한국 수출액	5,127	5,797	5,480	5,619	5,900
한국 점유율 (점유율 순위)	0.88 (23위)	1.02 (20위)	1.12 (18위)	0.96 (21위)	0.97 (21위)

자료: GTA(방산물자 포함, 수출 FOB, 수입 CIF 기준)(2022년 11월 기준)

다. 투자 진출

■ 최근 외국인 투자(FDI) 동향

- '21년 對프랑스 외국인 투자는 전년 대비 32% 증가, 역대 최대 기록 경신
 - 총 1,607건의 외국인 투자 유치로 약 45,00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보다 32% 증가한 수치
 - 그 중 제조업 투자가 460건으로 가장 많고, 전략센터 진출이 380건, 판매 법인이 206건으로 기록됨
 - 투자국 점유율은 독일(18%), 미국(15%), 영국(9%), 벨기에(7%), 네덜란드(6%) 순이며, 대륙별로는 유럽 국가 투자가 66%, 북미 19%, 아시아발 투자 8% 순

〈2021년 국가별 프랑스 투자 프로젝트〉

(단위: 개, %)

구분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점유율
독일	297	48%	18%
미국	247	21%	15%
영국	151	26%	9%
벨기에	116	115%	7%
네덜란드	103	23%	6%
이탈리아	96	2%	6%
스위스	81	76%	5%
캐나다	55	57%	3%
스페인	55	12%	3%
중국	53	0%	3%

자료: Business France(2022년 5월 기준)

- 한편 2021년 프랑스의 FDI가 활발한 분야는 상업·유통(13%), IT 서비스(9%), 물류(9%), 자동차 제조(8%), 컨설팅 서비스(7%)로 집계됨
 - '21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외국인 투자 산업은 상업·유통, IT 서비스, 물류, 자동차 제조, 컨설팅 서비스 순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동향

- '21년 한국은 프랑스에 11억 5,900만 달러 투자, 22개 신규 법인 설립
 - 2020년의 침체를 벗어나 코로나 이전 수준을 되찾고 있음
 - '21년 對프랑스 에너지 산업, 금융업, 부동산업 신규 투자 증가
 - 특히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8억 6,800만 달러의 투자 발생
 - * 한화솔루션의 프랑스 재생에너지 개발기업 'RES 프랑스' 지분 인수
- 대표적인 진출 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아모레퍼시픽, 제일기획, SPC그룹, 셀트리온 헬스케어
 - * 공기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출입은행, 코레일, KOTRA

〈연도별 對프랑스 투자 추이〉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6	53	16	169	48	66
2017	122	24	195	125	97
2018	137	15	423	158	488
2019	137	26	2,022	154	1,843
2020	77	8	478	87	287
2021	100	22	1,381	106	1,15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2년 5월 기준)

■ 주요 경쟁국 투자 진출 동향

- (Nippon Suisan, 일본) 일본의 대표적인 수산식품기업 닛폰 수산은 프랑스 시장의 수산식품 생산과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프랑스 북부 Haut de France 지역에 12,000m² 규모의 생산 공장 건립. 총 3,200만 유로 규모이며, 96명의 일자리 창출. 2024년부터 공장 가동 예상
- (Getir,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식료품 신속 배달 플랫폼 기업으로, 2021년 6월 프랑스에 진출해 9개월 만에 프랑스 5개 도시에 30개 이상의 지점을 열고 1,700명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2022년까지 프랑스 전역에 약 5,000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

- (Adaptiv, 인도) 대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커리어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으로,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인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에서 선발, 양성됨. 2021년 초 프랑스 그르노블 지방에서 투자를 받았음
- (Merck KGAA, 독일) 머크는 의약 및 화학 전문 기업으로, 프랑스 해외 투자유치 행사인 'Choose France 2021'에서 프랑스 동부 Molsheim 지역에 2,500만 유로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 발표. 지금까지 기업의 미국 공장에서만 생산해오던 백신용 멸균 반응 용기를 생산할 목적이며, 약 500명의 일자리 창출 예정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 프랑스 정부는 연구개발(R&D)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조세 감면을 비롯하여 클러스터 조성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제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지방 산업 거점 육성 차원의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 확대 중

〈조세 감면 및 입지 지원 인센티브〉

구분	제도	부여 대상	주요 내용
CIR (Crédit d'Impôt Recherche)	연구개발(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고용 규모 250명 이하, 연 매출 5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 중에서 유럽경제구역(EEE: l'Espace économique Européen)에 투자한 R&D 기업	- 연구개발비 1억 유로 이하: 법인세 30% 감면 - 연구개발비 1억 유로 이상: 법인세 5% 감면 - 프랑스 해외령(DOM)에 투자한 경우 법인세 50%까지 감면 * 다른 인센티브 혜택과 누적 불가
지방 개발 목적 지역(AFR) 신생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EU가 지정한 목적지(AFR)에 신규 설립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사회보장세, 지방세 한시적 감면 정책	2023.12.31.까지 해당 지역에 신규 설립되는 제조업, 농업, 서비스 등 분야에 속한 기업 * 자본금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한 기업에 한함	- (법인세) 기업 설립 후 24개월까지 이익금의 100%, 3년째는 75%, 4년째 해에는 50%, 5년째 해에 25% 등 각각 감면 - (토지세, 부가가치 기여금) 지방정부의 심의를 거쳐 2~5년간 토지세(CFE) 및 부가가치 기여금(CVAE) 100% 감면 가능
특별구역 고용 기업 세제 감면 제도 (ZFU-TE)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31개의 개발 목적지(ZFU-TE: Zone franche urbaine-territoire entrepreneurs)에 설립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정책	2016.1.1.~2023.12.31. 사이 동 대상 지역에 신규 설립되는 제조업, 농업, 서비스 등 고용 인원 50명 이하, 연 매출 1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	- (법인세) 기업 설립 이후 첫 5년간 100%, 6년째 60%, 7년째 40%, 8년째 20%의 감세 혜택 부여 * 한 해 최대 5만 유로, 3년간 최대 20만 유로 까지 감세 혜택 적용

구분	제도	부여 대상	주요 내용
농촌 활성화 지역 고용 기업 법인세 감면 (ZRR)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활성화 지역(ZRR: Zone de révitalisation rurale)에 설립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023.12.31.까지 해당 지역에 설립된 기업 중 정규직(CDI)이나 6개월 이상의 비정규직(CDD) 직원을 최소 1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자본금 50% 이상을 직접 소유한 기업에 한함 * 금융, 부동산, 1인 기업, 기존 사업 확장의 경우는 제외	- (법인세) 기업 설립 이후 첫 5년간 100%, 6년째 75%, 7년째 50%, 8년째 25%의 감세 혜택 부여
혁신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혁신 스타트업(JEI), 청년 연구소, 대학 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인센티브	2022.12.31.까지 회사 자본의 10% 이상을 석·박사, 교육자, 연구원(최소 5년 이전에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자나 부부)이 소유하거나, 총 지출의 15% 이상을 연구비로 지출한 설립 8년 미만의 중소기업	- 설립 후 첫째 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100% 감면, 이듬해 50% 감면 * CIR 연구개발 투자 조세 감면 혜택과 누적 가능 - 엔지니어, 연구원 등 정부가 정한 조건의 인력 고용에 따른 사회 부담금 감면 * 1개월 급여 7,214.03유로 이하(세전)에 한함
클러스터 입지 지원 정책	주요 연구개발 프로젝트 및 혁신 플랫폼 지원	항공우주, 자동차, 바이오테크놀로지, IT 등 주력/첨단 분야 기업	- 프랑스 정부, 2019~2022년간 클러스터 지원 정책에 약 4억 유로 규모 기금 조성 * 파리 근교의 과학기술산업 클러스터, 파리스클레 (Paris-Saclay), 프랑스 남부 니스 근교의 소 피아 안티폴리스(Sophia Antipolis), 독일 국경 부근의 시멕 인더스트리(Simec Industrie) 등 이 대표적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협력 의제

가. 교역

■ 한국과의 교역

- (對프랑스 수출) '22년 7월까지를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 선박(컨테이너선)의 수출액이 특히 증가(+201.1%)했는데,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운송량이 증가하면서 발주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정부의 내연기관차 규제에 따른 친환경차 수요 증가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품목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라 축전지, 자동차 부품의 수출도 높은 점유율 차지

〈2022년 1~7월 한국의 對프랑스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수출금액	증가율
	수출 총계	2,989,125	27.0
1	자동차	850,532	12.5
2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547,112	201.1
3	무선통신기기	145,181	43.8
4	반도체	132,986	19.4
5	건전지 및 축전지	93,250	-2.4
6	전자응용기기	75,330	29.1
7	합성수지	73,742	-6.8
8	기타기계류	73,557	-32.2
9	자동차부품	69,187	6.4
10	정밀 화학원료	67,588	29.7

자료: K-Stat(2022년 9월 기준)

- (對프랑스 수입) '22년 7월까지를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은 가방, 화장품, 의약품, 집적회로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 총 수입액 43억 5,42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
- '22년 상반기, 항공기의 수입액이 각별히 증가(+8,159%)했고, 자동차 부품(55.7%) 및 집적회로 반도체(34.3%) 수입도 증가 기록

〈2022년 1~7월 한국의 對프랑스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수입금액	증가율
	수입 총계	4,354,242	16.5
1	가방	456,925	6.9
2	화장품	286,674	7.5
3	의약품	270,915	7.9
4	집적회로반도체	224,159	34.3
5	자동차 부품	208,453	55.7
6	주얼리	194,684	33.0
7	주류	129,837	19.2
8	펌프	113,483	14.0
9	낙농품	94,460	0.0
10	항공기	85,331	8,159

자료: K-Stat(2022년 9월 기준)

프랑스와의 교역에는 한-EU FTA가 적용되고 있음 (2015년부터 완전 발효)

〈한-EU 양허 품목〉

양허 유형	EU의 對한국 양허 품목 (기준 관세율)
즉시 (2011. 7~)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스웨터(12%),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9~12%), 아세탈수지(6.5%), 연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2013. 7~)	1,5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4~4.5%), 합성수지(6.5%), 고무벨트(6.5%), 복사기(6%), 항공기(7.5~7.7%), 기타신발(16.8%), 자전거(15%), 주방용 도자기 제품(12%) 등
5년 (2016. 7~)	1,500cc 이하 소형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화물자동차(22%), 칼라TV(14%), TV 카메라 및 수신기(14%), 영상기록재생용기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기 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등

자료: 관세청

■ 우리 기업 수출 성공 사례 및 시사점

수출 성공 사례 (1)

전문가용 미용가위 수출 기업 M사

- 1년 여간의 지속적인 바이어 대응 끝에 프랑스 수출 거래 성사
 - 전문가용 미용가위 유통기업 M사는 홍콩 전시회에서 만난 프랑스 바이어와 언어 문제 등으로 교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KOTRA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 파리 무역관의 지원으로 수차례 바이어와 화상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음
 - 신규 공급처와의 거래에 무척 보수적인 바이어의 특성상 거래를 트기까지 약 1년 여간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KOTRA 해외 주요 거래선 관리 서비스(지사화 사업 부가 서비스)를 통해 까다로운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 하며 밀착 지원한 결과, 마침내 지난 2021년 말 수출 계약을 체결, '22년도 초 프랑스 첫 수출을 성사하였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거래를 지속 중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對韓 수입 증가율 (2021)	對韓 수입 증가율 (2022.6)
821300	미용가위	+31.20%	-28.79%

- 제품의 비교우위:
 - 국제적으로 일본산 미용가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M사는 세계 유수의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는 일본 미용가위 공업사로부터 아시아와 유럽 시장 유통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아, 고급 미용가위를 대량생산 방식으로 생산함에 따라 우수한 퀄리티 대비 뛰어난 가격경쟁력이 강점
 - SGS와 같은 공인된 국제검사기관을 통해 미용가위에 사용된 금속 경도 테스트(Metal Harness Test)를 진행, 해당 테스트 결과 보고서는 바이어와의 계약 단계에서 미용가위의 품질을 증빙하는 결정적 자료로 활용됨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없음
성약 소요기간	12~13개월
바이어 발굴 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온라인 리서치)
바이어 D/B	VERIF, Societe.com, Google, Kompass
유망 전시회	Cosmoprof (Worldwide Bologna & Asia Hong Kong)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프랑스 바이어는 신규 공급처와의 거래에 있어 매우 신중하기 때문에, 성급히 진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인내를 갖고 장기간 꾸준히 연락을 취하면서 요청 및 문의 사항에 대응,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프랑스 미용가위 시장의 경우 '1미용가위 브랜드 1유통사' 유통 체제로 시장이 구축되어 있어, 현지 수입/유통사(바이어)가 독점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상대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회사 규모, 시장 내 입지, 마케팅 의지와 계획 등)와 해당 품목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출 성공 사례 (2)

가공식품 제조/수출 기업 D사

-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한류 열풍에 가세한 K-Food
 - 프랑스 일반 슈퍼마켓에 가공식품을 납품하는 프랑스 기업 E사는 2008년 일본 음식 브랜드인 T를 출시함. 그러나 점점 높아지는 한국 음식의 인기로 2022년 2월 파리 무역관이 보낸 한국 기업 D사 소개 메일에 답변을 해옴
 - E사는 전국 단위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능력과 이미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을 선호했고, 이러한 능력을 갖춘 D사와의 화상 상담을 파리 무역관 주도 하에 2022년 3월에 진행함
 - 유럽 수입 금지 성분을 배제한 고기 요리용 전통 소스 3가지 레시피를 발 빠르게 개발하여 OEM 생산 협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음
 - 이후 E사는 김치 수입도 원하였고, 상온 제품만을 유통시키는 E사의 특성으로 D사는 상온용 김치 레시피 개발에 착수하여 프랑스 시장으로의 김치 수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對韓 수입 증가율 (2020)	對韓 수입 증가율 (2021)
210390	가공소스, Sauce	+40.5%	+134.3%

- 제품의 비교우위: D사는 국내에 여러 개의 자체 생산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통 장류, 김치류, 면류, 해조류, 시즈닝, 조미료 등 매우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음. 약 20여 년 전부터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해서 유통 관리 및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으나, 프랑스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파리 무역관의 바이어 발굴, 화상상담 진행, 유럽 수입 금지 성분에 대한 안내 등의 밀착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게 된 것으로 분석됨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ISO, HACCP 인증
성약 소요기간	10개월
바이어 발굴 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온라인 리서치)
바이어 D/B	Google, Kompass
유망 전시회	S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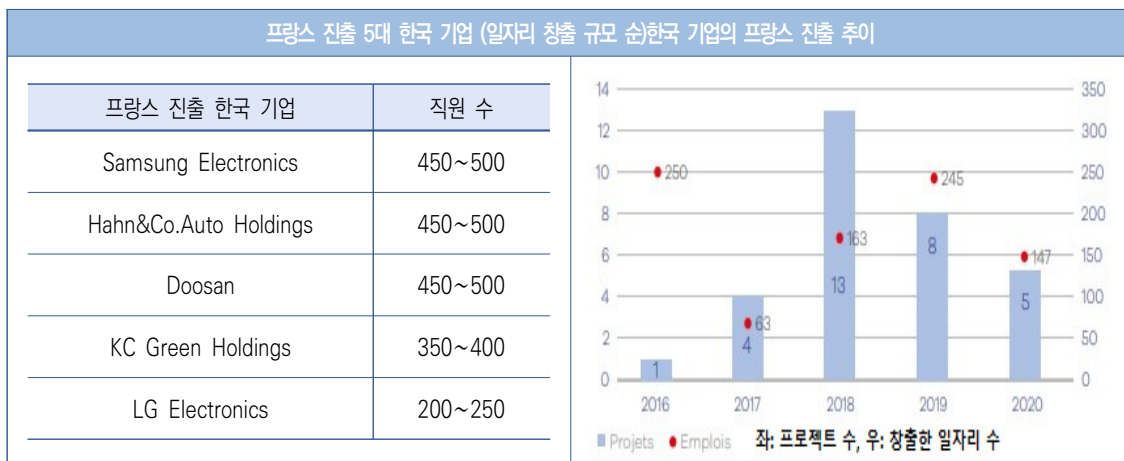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식품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식품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움. 이런 이유로 대형 리테일러 업체들은 해외 제품의 직접 수입을 꺼리며, 식품 규정을 잘 알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프랑스 식품 제조사나 밴더 업체와 주로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제품 납품 후에는 한국 식품을 잘 알지 못하는 프랑스 일반 소비자 교육을 위한 꾸준한 마케팅 지원이 요구되므로, 프랑스 시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무역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나. 투자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동향

- 비즈니스 프랑스(Business France)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0년 유럽에서 헝가리 다음으로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두 번째 국가임
 - '20년 한국은 총 5건의 프로젝트로 프랑스에 진출, 총 14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5건의 프로젝트 중 3건은 제조업, 1건은 R&D, 1건은 물류산업으로 집계됨
- 프랑스 내 70여 개 법인이 한국에서 투자되었으며, 53,000여 개 일자리 창출
 - 식품산업,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자동차 및 부품 제조, 기계, 섬유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Business France(2021.6 발표)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성공 사례

투자 진출 사례 분석 (1)

카카오엔터, '카카오픽코마 유럽'으로 프랑스 웹툰 시장 본격 진출

- '22.3월, 유럽 법인 '카카오픽코마 유럽'을 프랑스에 설립한 지 6개월 만에 웹툰 플랫폼 서비스 시작
 - 카카오는 '11년부터 일본에 카카오픽코마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종합 디지털 만화 플랫폼인 '픽코마'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에서 쌓은 성공 경험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프랑스에 적용하겠다는 전략
 - 북미, 아세안에 이어 프랑스 시장을 시작으로 유럽 진출을 박차겠다는 계획임. 프랑스 만화시장은 독일 다음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큼
-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와 같은 근래 이례적인 상황은 프랑스 만화산업에 호재로 작용해 호황기를 누리고 있으며,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층 또한 디지털로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아직 프랑스에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웹서비스 강자가 없는 상황임
 - 현재 프랑스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프랑스 매출과 월간 활성 이용자(MAU) 기준으로는 네이버 웹툰이 1위이나, 카카오픽코마는 프랑스 구글 플레이 만화 어플 중 인기 1위를 차지. 올해 7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한 파리 재팬 엑스포(Japan Expo)에서 네이버 웹툰은 웹툰 플랫폼으로 유일하게 단독 부스로 참가하고, 카카오픽코마는 재팬 엑스포의 단독 공식 스폰서로 선정되어 존재감을 과시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성공 포인트 :
 - 프랑스 콘텐츠 시장은 장르나 소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문화가 없고, 소비자층도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성이 좋은 편
 - 현지 언어와 문화를 고려한 양질의 번역은 웹툰, 웹 소설, 영상 콘텐츠 해외 진출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역량인데, 카카오는 '21년 콘텐츠 다국어 번역에 강점을 가진 '키위미디어컴패니'를 인수하고, 로컬 레이션팀을 운영해 한국 우수 웹툰을 현지 언어와 문화에 맞게 현지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음
 - 웹툰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생태계 키 플레이어들과 협력, 인수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실을 다지고 있는 점이 성공 포인트라 할 수 있음

투자 진출 사례 분석 (2)

2차전지 분리막 전문기업 더블유씨피(WCP), 프랑스에 2차전지 분리막 설비 투자 추진 중

- '22.9월, 2차전지 분리막 전문기업 더블유씨피(WCP)가 프랑스에 생산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와 투자 협약을 진행 중
 - 올해 6월에 발표한 약 7억 유로 투자 규모의 헝가리 생산라인 증설 계획에 이은 두 번째 투자로, 헝가리와 프랑스를 기반으로 유럽 전초기지 구축 계획
 - 분리막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과 함께 2차전지의 주요 4대 구성 요소로, 배터리 내 양극과 음극을 분리 하면서 리튬 이온만 통과시키는 절연 소재의 미세 다공성 초박막 필름으로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기술임
-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과 수요에 맞물린 투자
 - 마크롱 정부는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의 2차전지 소재 산업단지 구축을 준비하고 있음
 -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금속 소재의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 10억 유로 투자를 발표하는 등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 육성에 매우 적극적인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성공 포인트 :
 - 더블유씨피는 독자적인 분리막 공정 기술과 도입 설비에 자체 기술을 적용하는 설비 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구현하고 제조단가를 낮추면서 가격경쟁력도 확보함
 -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고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지원 정책과 현지 기업들의 협력 수요를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협력 유망 분야

■ (G2G) 원자력 기술 협력

- 한-프랑스 정상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가지는 중요성에 공감하며, 안전한 원전 운영과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논의
 - * '22.6.29.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NATO) 정상회의
- 현 마크롱 정부는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는 지키되 대형 원전 폐쇄 시기를 늦추고 원전 의존도 감소 목표 시기를 늦추는 중
 - * 마크롱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 속도가 아직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
-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EPR2 타입 원자로 6기 건립과 8기 추가 건립 검토 계획이 발표된 상황('22.2.)

〈프랑스 원자력 산업 주요 기업 및 기관〉

종류	기업명	담당 내용
원전 건설	Framatome	- 원자로 설계 및 건설 - 원자력 보일러 장비와 장비 서비스 제공 - EDF 계열사(2018년부터)
	Orano (구 Areva)	- 우라늄 광산 채굴, 농축, 정제 - 핵연료 제조, 수송, 사용 후 핵연료 처리, 폐기물 관리 등 핵연료의 전 주기를 아우름 - 프랑스 정부가 지분 80% 소유
	GE Steam Power (구 Alstom Power)	- 원자로 내 증기 터빈, 교류 발전기, 응축기 및 전기 변환 장비 등을 포함한 시설 설계 및 시공 - 프랑스 EDF가 원전 사업 부문 일부 인수('22.1.)
운영	EDF	- 프랑스 내 58기의 원자로 전반을 모두 관리하는 국영기업
	CEA	- 프랑스 원자력 대체에너지 위원회 - 실험용 원자로 운영 - 공공 원자력 연구개발기관
관리	ASN (Autorite de Surete Nucleaire)	- 프랑스 원자력 시설의 규제, 안전 및 보안 통제(연구, 전기 생산, 재처리 및 보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국가 행정 당국
	IRSN	- 원자력 및 방사선 위험 방지 공공전문기관, 방사능 수준 측정
	EDF	- 발전소의 유지보수와 시설 안전 검토 - ASN 당국은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발표

자료: 파리 무역관 정리

■ (B2G) 지정학적 긴장으로 방산물자 수요 증가, 정부 차원의 협력 모색 필요

- '22.6. 프랑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프랑스 방산물자 수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1년 프랑스의 총 수출액은 117억 유로로 역대 세 번째 최대 수치 기록
- 프랑스 방산물품 수출의 44%는 중동 지역으로 기록됐으며, Dassault 그룹의 전투기 수출이 수출 증가에 가장 큰 기여
-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내 긴장이 높아지면서 유럽 내 방산물품 수요 증가
- 한국의 국방과학 기술력 및 방산기업 매출액 등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여전히 선진국(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과의 격차는 큰 상황임
-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 사이 한국은 세계 8위의 방산물품 수출국(수출점유율 2.8%)
- 수출 대상국들이 요구하는 최신 장비와 기술적 수준을 갖추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B2B) 수소 에너지 : ‘프랑스 2030’ 등 정부의 적극 투자에 따라 Air Liquide 사를 비롯해 Total Energy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중
 - (Plastic Omnium) '21.8. 현대차와 연간 3만 대 물량의 수소탱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1.12. 한국에 수소연료탱크 공장 설립을 위해 3,500만 달러 투자 발표
 - (Air Liquide) 프랑스 노르망디에 수소연료 생산을 위한 전기분해설비를 200MW 규모로 확장, H2V Normandy사의 지분 40% 인수. 여기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는 산업용 에너지원에 사용되는 동시에 상용차 등 모빌리티 분야로 사용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연간 28,000톤의 수소 에너지 생산 예상
 - (TotalEnergy) Total사는 '21년 친환경 에너지 사업 비중 확대를 대외에 발표하면서 사명을 TotalEnergy로 변경함. 프랑스 공영 에너지기업 Engie와 공동으로 Masshyla 프로젝트 추진. 매일 5톤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한 전기분해기를 '24년까지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Marseille) 인근에 설치 계획. 100MW급 태양광 발전기가 청정수소 생산에 소요되는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 (Renault) '21.1. 미국의 Plug Power사와 합작법인(JV) 하이비아(Hyvia) 출범. 하이비아는 유럽 수소 상용차 시장점유율 30% 달성 목표를 발표하고, 프랑스 Flins 공장에서 연료전지와 수소 충전 시스템 조립 생산 진행
- (공급망) 전기차 배터리 : 유럽 내 공급망 확보의 시급성으로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수요 증가
 - 전기차 배터리 관련 프랑스 자체 기술 개발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아시아기업들과의 기술적 협업 수요 증가
 - 유럽의 완성차 개발 기업들은 기업 간 파트너십, 스타트업 투자, 기업 내부의 배터리 생산시설 설립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택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어느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배터리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느냐가 매우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됨
 - 액체 전해질 배터리의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상용화, 배터리 성능을 높여주는 첨가제나 이차전지 부품, 안전성 테스트 장비 등 다양한 관련 산업과 솔루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2023

프랑스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 ※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프랑스 정부가 공급망 재편을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는 산업에 주목해 투자 지원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 원자력, 수소 등 한국-프랑스 공동의 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협력 모색
- ※ 고유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달라지는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프랑스 SWOT 분석〉

강점 (Strength)

- 세계 7대, EU 2대 경제 규모
- EU 내 교역 물류의 중심, 아프리카, 중동으로 이동 용이한 고밀도 교통 인프라 보유
-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및 해외 투자 유치 정책으로 감세 혜택 등 투자 여건 향상

약점 (Weakness)

- 역내 교역 비중 큰 편으로 유럽연합 외 국가에게 높은 진입 장벽
- 점점 엄격해지는 환경규제, ESG 기준 및 인증제도

기회 (Opportunity)

- 제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기업 간 협력 등 진출 기회 다각화
- '프랑스 2030' 미래 전략 산업 분야 대폭 투자
- 한류 콘텐츠 열풍으로 한국산 소비재 인기

위협 (Threat)

- 인플레이션 심화로 구매력 악화
- 에너지 비용 및 환율 상승으로 물류 환경 악화
- 유럽 내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위기 지속

전략 방향	세부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프랑스 내 현지화를 통한 진출 검토 •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확대
ST 전략 (강점 활용)	• 프랑스 국내 지역별 세제 감면 제도 및 혁신기업 조세 감면 제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 활용 • 기술적 경쟁력을 앞세워 EU 내 제조업 공급망 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
WO 전략 (기회 포착)	• 친환경 규제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들에 주목 • 친환경 인증 취득으로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층 공략
WT 전략 (위협 대응)	• ESG 관련 EU 차원의 정책 및 규제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 • K-푸드 등 한류 관련 소비재의 현지 생산 등으로 리스크 완화

진출전략

현지 정부의 투자 산업에서 진출 기회 모색

M&A, 기술협력 등으로 현지 생산 확대

급변하는 시장과 수요에 맞추어 유연성 강화

친환경 인증 취득, 리스크 모니터링 및 규제 대응 강화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3년 진출전략

핵심요인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제조업 분야 투자 활성화	◦ 전략산업 공급망 재편 계기를 기회로 활용 - 프랑스 정부, 전자부품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공급망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 발표 - 2030년까지 유럽 시장 점유율 20% 달성 목표 -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제조업 기업에 부여하는 프랑스 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활용, 현지 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의 방식으로 진출 가능성 모색
에너지 위기로 생산 확대 시급	◦ 원자력, 수소 등 에너지 산업 기술협력 및 부품 공략 - 기존의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 비중 유지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소형 원자로 투자 확대 발표 - 에너지 위기로 노후 원전 보수 등에 투자 집중 전망 - 프랑스 국내 10여 개의 청정수소 생산 공장 프로젝트 발표 -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태양광 패널 수요 증가
소비재 트렌드 변화	◦ 고물가 시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 - 가계 구매력 하락으로 소비 가치 기준 변화 - 친환경 제품, 에너지 소비 절약 가능한 제품 등 인기 예상 - 전자상거래 소비 경향 및 트렌드 파악 필요 - 한류 콘텐츠 인기에 따른 소비재 시장 진입 모색
ESG 요소 강화	◦ ESG 도입으로 프랑스 대기업과 협력 요건 확보 - 글로벌 기업들과의 원활한 파트너십 유지를 위해 협력사의 ESG 기준을 숙지, 기술적 준비 작업 등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필요 - 점점 까다로워지는 EU의 친환경 규제에 기술적 대응 필요
인플레이션 및 에너지 위기 심화	제조업, 에너지, 친환경에 주목 선택과 집중으로 위기를 기회로

2-1. 전략산업 공급망 재편을 부품·소재 신규 진입 기회로 활용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코로나19 장기화에 러-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쳐 전자부품의 공급 지체로 인한 수급 불균형 심화
 - * '21년부터 프랑스 완성차 기업인 스텔란티스, 르노 공장 등의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 등 발생
- ※ 프랑스 정부, 2030년까지 전자부품 생산량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 유럽 시장의 세계 점유율 20% 달성 목표 발표
- ※ ESG 요소 강화 추세에 따라 완성차 제조 기업들, 자체적으로 ESG를 그룹 경영의 핵심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글로벌 협력사들에게도 지속가능 경영 동참 요구 추세

■ '프랑스 2030' 미래 전략 산업 투자 계획 ('21.10. 발표)

- 마크롱 대통령, '22년부터 5년간 미래 전략 산업(에너지, 미래교통, 바이오, 식품, 문화, 우주 등)에 300억 유로 투자 계획 발표
 - 선정 분야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급망 취약성이 크게 드러난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전자부품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반도체 생산설비에는 'France 2030' 전체 예산의 20%인 60억 유로 투입이 결정됐고, 투자 규모가 큰 만큼 EU와 협력 투자 중

〈프랑스 2030 투자 계획 핵심 목표〉

분야 (예산)	핵심 목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80억 유로)	- 2035년까지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한 혁신적인 소형 원자로 개발 - 2030년까지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분야 리더로 도약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15년 대비 35%까지 감축,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
미래 교통 (40억 유로)	- 2030년까지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200만 대 생산 - 2030년까지 저탄소 항공기 세계 최초 개발
농업·식품 (20억 유로)	-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추적 가능한 식품산업 혁신 및 관련 유럽 산업 주도권 강화
바이오·의료 (30억 유로)	- 만성질환 및 종양 치료 바이오의약품(Biomedicine) - 첨단 의료장비 개발 및 생산
문화 콘텐츠 (20억 유로)	- 문화 콘텐츠 산업 경쟁력 지속 강화
우주 및 해양 (20억 유로)	- 새로운 우주 탐사 추진 - 심해저 조사 분야 투자

자료: Palais de l'Elysée(대통령실)

■ (ESG 요소 강화) 프랑스 정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각종 제도 도입

- 내연기관 자동차 규제 강화를 통한 내연기관 자동차 소비 축소
 - 2035년부터 유럽연합 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결정에 적극 협조
 - 2020년부터 국제표준 자동차 연비 측정 시스템인 WLTP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그 배출량 기준을 해마다 줄여나감으로써(2020년 138g/km → 2022년 128g/km)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에 탄소세를 가중 부과
 - 또한 2022년부터는 SUV 등 중형차 규제 위해 자동차의 무게 역시 탄소세 부과 기준에 포함
- 마트롱 대통령, 전기차 구매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수준 하위 가구에 대해 현행 6,000유로 보조금을 7,000유로까지 상향' 계획 발표
 - 프랑스 정부는 당초 금년('22)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구매보조금 축소 시기를 '23.1.로 연기('22.6.30.)한 바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 발표로 인상으로 변경

〈프랑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기준 및 인센티브 ('22.9. 기준)〉

○ 구매보조금

구분			보너스 (유로)	
			개인	법인
신차	승용차	47,000유로 이하 (법인: 45,000유로 이하)	6,000	4,000
		47,000~60,000유로 (법인: 45,000~60,000)	2,000	2,000
	상용차(트럭)		7,000	5,000
	50,000유로 미만 하이브리드 신차 50km 이상 주행 가능		1,000	1,000

- 전기차 전환 인센티브 (구매보조금과 누적 수혜 가능, 2006년 이전 등록된 휘발유차, 2011년 이전 등록된 디젤 차량에서 전환하는 경우)
 - 전기차로 전환 시: 최대 5,000유로까지 인센티브 지급
 - 하이브리드차로 전환 시: 최대 5,000유로까지 인센티브 지급

자료: 프랑스 경제부

- Renault 그룹, ESG를 그룹 경영의 핵심으로 운영
 - 새로 구성한 '지속가능 발전 부서(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를 핵심 전략부서로 배치, ESG를 그룹의 핵심 사업 계획인 'Renaulution' 전략 플랜의 중심에 위치시킴
 - 2040년까지 유럽 시장 내 탄소중립 달성뿐만 아니라 기술 전환 및 그룹 구성원의 다양성을 증진 계획
 - 그룹 내 CEO의 보수 책정 시 유럽 내 전기차 판매 비중, 생산된 차량의 탄소발자국 등 탄소발자국과 관련된 기준 반영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전기차용 배터리 및 부품) EU의 탈탄소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수요가 지속 상승 중이나 공급은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는 상황

- 배터리 부문 선두에 있는 아시아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 EU 차원에서 배터리 연합(EBA) 출범 등 투자 확대 중
- 배터리 생산이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 요소가 되는 상황으로, 프랑스 자동차 기업들은 배터리 생산을 위한 기가팩토리를 건설 중이고, 해외 기업과의 기술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음
- 한국은 프랑스의 전기차 배터리 수입률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네 번째 주요 수입국이며, 2021년 프랑스의 수입액은 14억 유로 기록, 전년 대비 108.92% 증가
- 현재 유럽에서 한국의 3대 기업(LG Energy Solution, SK Innovation, Samsung SDI)을 비롯해 아시아 6개 기업이 활발히 경쟁 중이며, 배터리 기술력을 만회하기 위한 프랑스의 노력과 투자가 계속되어 해외 인재 영입과 협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

● (반도체)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프랑스 정부와 EU의 노력 가속화

- EU는 2030년까지 유럽의 반도체 생산력을 전 세계의 20%까지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반도체 플랜인 'Chips Act' 추진 중('22.2. 발표)
 - * 총 420억 유로 규모 최신 기술 개발(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에너지 효율성(FD-SOI 기술)의 두 축을 중심으로,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대규모 생산에 이르기까지 밸류 체인 전반을 복합적으로 육성 계획. EU 회원국들이 기술 연구에 120억 유로, 대규모 공장 등 생산설비 증설에 300억 유로 투입
- 프랑스 정부는 자국 기업 육성 외에도 해외 기업의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중 하나로 미국 반도체 제조회사 GlobalFoundries가 프랑스/이탈리아 반도체 생산 기업인 STMicroelectronics와 프랑스에 반도체 제조회사 설립 예정('22.7.)
 - * STMicroelectronics사의 프랑스 공장이 위치한 프랑스 남동부 그르노블 지역에 57억 유로 규모 투자, 일자리 1천여 개 창출 예정

● 제조업 부활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해외 기업 유치 인센티브 프로그램

- 프랑스 정부는 연구개발(R&D)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조세 감면을 비롯하여 클러스터 조성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가 전략 산업 분야의 제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지방 산업 거점 육성 차원의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 확대 중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기업들의 對글로벌 협력사 ESG 동참 요구 추세

- (완성차 제조회사 Renault) 모든 파트너 협력사에게 '탄소중립', '안전한 모빌리티', '사회적 포용'이라는 세 가지 전략에 동참할 것을 주문. 철강, 알루미늄, 폴리머, 전자부품, 렌즈, 타이어와 같은 주요 소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 역시 제품 생산 시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 재료 운반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현지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조달하거나 Renault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기술 개발 정책을 세우는 것 등 포함
- (완성차 제조회사 Stellantis) 원활한 공급망 유지를 위하여 다른 모든 지역의 협력사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 협력사들 역시 Stellantis의 CSR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줄 것을 안내하고 있음
 - * 미네랄과 같은 천연자원 조달이나 배터리 개발 및 생산 등 전기차 생산에서 아시아 국가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코발트, 리튬, 니켈 등 고전압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Stellantis 공급망 내 금속 정제공장이 중국 등 아시아에 포진

2-2. 원자력, 수소 등 에너지 분야 협력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프랑스 2030' 투자 플랜 중 탈탄소 에너지 분야에 가장 큰 규모인 80억 유로 배정
 - * 미래형 소형 원자로 개발, 그린수소 에너지 전기분해 기가팩토리 건설, 수소에너지 기술 투자 등
- ※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값 상승으로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투자 증가할 전망
- ※ '23년 겨울부터 '24년까지 에너지 값 폭등이 예정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 절약상품과 재생에너지 관련 소비재 상품 수요가 증가할 전망

■ 프랑스 에너지 산업 주요 이슈

- '프랑스 2030' 중 '탈탄소 프랑스 건설을 위한 에너지 분야'에 최대 규모 예산 배정(80억 유로)
 - 혁신적 소형 원자로 개발에 2030년까지 10억 유로 투자 계획
 - 마크롱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원칙을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 원자력 의존도 50% 달성(현재 약 70%) 목표 시기를 기존의 2025년에서 2035년으로 변경하고, 노후 원전 폐쇄 시기도 재검토함
 - 그린 수소 에너지 : 2030년까지 최소 2개 이상의 전기분해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
- 프랑스의 송전망으로 공급되는 전력의 95%는 프랑스에서 생산되어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편이나, 최근 원전 노후화로 인한 가동 중단으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
 - '23년분의 프랑스 전기 도매가가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폭등
 - 프랑스 정부는 '23년 전기가격 인상 상한을 15%까지 동결하고, 어려움이 큰 제조기업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 지원책 발표
 - 향후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전 분야와 수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원자력 산업

- 2050년까지 미래형 원자로 14기 건립 예정으로 기술협력 수요 증가
 -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내 에너지 자립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프랑스 원전의 절반이 노후화로 가동을 멈추면서 원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
 - 마크롱 대통령, EPR2 타입 원자로 6기 건립과 8기 추가 건립 검토 계획을 발표, 2035년 첫 서비스 시작 후 2050년까지 최소 6기 건립을 기본 목표로 수립
 - * 국영 전기회사 EDF는 EPR6 건립에 향후 25년간 약 517억 유로 소요 예상
 - 소형 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 Nuward는 현재 프랑스 원자력 안전당국의 평가 단계에 있음
 - 프랑스 원전 프로젝트가 대규모 발표된 만큼, 2030년까지 원전 건립뿐 아니라 핵폐기물, 폐원전 해체, 핵 원료 재활용 등 분야에서 기술협력 및 기술인력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

■ 그린수소 인프라 프로젝트

- 국가 전략산업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구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 중
 - 프랑스 정부는 수소 에너지를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해왔으며, 그린수소 산업 분야에서 비교적 앞서가고 있음
 - 그린수소 국가 전략을 통해 향후 10년간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70억 유로 투입 계획 발표('20.9.), 이후 프랑스 2030 투자 계획 프로그램으로 19억 유로 추가 투입
 - 탄소 중립화를 위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교통·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 솔루션 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저장 기술 개발 등 중점 추진 중
 - 최근('22.9.) 53억 유로 규모의 10개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프로젝트 선정, 발표 예정
- 프로젝트 동향 및 공모 방식
 - 지원 대상 프로젝트 선정은 경쟁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며 산업, 운송, 전력 등 용처를 막론하고 그린수소 생산, 저장, 이동 등 생태계 전반의 R&D, 실증, 시범사업, 상업화 지원
 - 프랑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생산기술을 사용한 그린 수소 생산, 저장, 유통 전반의 소재, 부품, 설비 분야 강점 보유
 - 260여 개 기업 및 100여 개 협·단체로 구성된 프랑스 수소협회(France hydrogène)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스케일업을 통한 수소 생산 단가 인하를 비롯하여 적용 범위 확대 노력

〈수소 모빌리티 및 수전해 실증단지 프로젝트〉

구분	목표연도	주요 내용
수소 모빌리티	2023년까지	- 영업용 소형 차량 5천 대 운용 - 영업용 대형 차량(버스, 트럭, 열차, 선박) 200대 운용 - 수소 연료 충전소 100곳 설치
	2028년까지	- 영업용 소형 차량 2만~5만 대 운용 - 중대형 차량 8백~2천 대 운용 - 수소 연료 충전소 4백~1천 곳 설치
수전해 설비용량(P2G)	2023년까지	- 1~10MW
	2028년까지	- 10~100MW

자료: 파리 무역관 종합 정리

〈수전해 생산시설 프로젝트 추진 현황〉

프로젝트(지역)	주관기관	주요 내용
GRHYD (Dunkerque)	ENGIE 외 GRDF, AREVA H2GEN 등 11개 파트너사	-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Dunkerque)에 건립. 2014년에 시작, 2018년 6월 개시 - 그린수소 에너지의 주거지 공급을 위한 프랑스 최초의 프로젝트 - 주택과 모빌리티에 공급할 천연가스와 수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주로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을 수소 에너지로 저장, 이후 필요에 따라 천연가스 공급망에 공급 - 덩케르크 내 100여 개의 주택에 난방, 온수, 취사 등의 용도로 공급
JUPITER 1000 (Fos-sur Mer)	GRTgaz	- 프랑스 남부 론 지역(Bouches-du-Rhone) 지역에 위치 - 풍력과 태양열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을 이용하는 P2G 프로젝트로, 이미 존재하는 가스망 인프라에 수소를 주입해 여분의 재생에너지를 저장 - 2020년 서비스 시작, 2023년까지 테스트 기간 진행 - 2050년 연간 15~20TWH 규모의 가스 생산 목표
Mashyllia (Chateauneuf-les-Martigues)	TotalEnergie, Engie	-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Marseille) 인근에 위치 - 100MW 이상 생산되는 태양광을 이용, 그린수소 에너지 하루 최대 15톤 이상 생산 가능한 프랑스 최대 수전해 단지 건설 중 - 2021.1월 Total과 Engie사 간 파트너십 발표, 2022년부터 건설 시작, 2024년 완공 예정

자료: 파리 무역관 종합 정리

2-3. 인플레이션 시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소비자물가지수가 '23년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매력 하락에 따른 시장의 소비 트렌드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 에너지, 서비스, 가공품, 식품 등 생활용품 전반의 물가 급등 현상 이슈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음
- ※ '23년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더욱 인상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 관련 상품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친환경, 지속가능성, 콘텐츠 연관성 등으로 꾸준히 수요가 지속되는 상품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구매력 하락 위기

- '23년 소비재 시장의 트렌드 변화 전망으로 위기 속 기회요인 발굴
 - 프랑스 정부가 에너지 등 절약 캠페인을 펼침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시장 침체
 -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상품에 관심이 집중되며 수요 증가 예상
 - K-콘텐츠의 인기로 따라 한류 소비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 현지 투자 등의 방법으로 공급망 구축, 인프라 개선 등 방법 강구 필요
 - 친환경, 탈플라스틱, 건강 등의 가치를 앞세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품 수요 증가 예상

유망 품목 1: K-식품

- 현지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식문화에 대한 홍보가 확산됨에 따라 프랑스 소비자들의 한국 음식과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2022년 7월 파리 루브르 박물관 인근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Paris K-food Fair'에는 7천 명 이상이 현장을 방문했으며 수입 비즈니스 거래(B2B)도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둠
- 프랑스인들의 식생활 변화, 규제 요인, 그리고 최근 K-food 인기 등을 고려한 진출전략 마련 필요
 -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로 프랑스 소비자의 53%가 지구 온난화와 환경 보호를 위해 육류 함량이 적은 식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 식물성 단백질 섭취에도 긍정적
 - 건강관리 및 면역력 증대를 위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콤투차, 김치 등 발효식품 및 기능성 음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발효식품은 풍부한 유산균을 함유하여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 위와 같은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 콩, 두부 등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비건 푸드를 적극 개발하고, 김치뿐만 아니라 각종 장류, 막걸리 등 발효식품을 적극 홍보하여 프랑스 소비자들의 니즈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한편 유제품 성분이나 육류 등 동물성 원자재의 경우 프랑스로 수출이 불가능함. 따라서 유럽산 유제품이나 육류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프랑스로 수출이 가능한 식물성 원자재로 대체하여 맛을 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는 비건 제품에 대한 프랑스 내 관심 증가 트렌드와도 연결 가능

■ 유망 품목 2: 반려동물 용품

- 2020년 기준 프랑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50.5%)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이 중에서 43.5%는 반려견 또는 반려묘 한 마리 이상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 프랑스 소비자들은 반려동물 용품 구매 시, 제품의 품질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무조건 저가 용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제품의 안전성, 효율성 등을 간간하게 따지는 양상이며, 소비자의 눈높이 자체가 상향되고 있음
 - 일례로 사료 제조사들은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색소 등 첨가물을 배제한 사료나 유기농 제품(AB 인증 보유)을 출시
- 특히 반려동물 용품 시장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운 접목한 스타트업이 등장하면서, 소위 펫테크(Pet Techs)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물론 유럽 시장 전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전망
 - 체온, 배변 횟수 등을 분석하여 반려묘의 건강을 체크하는 반려묘 스마트 화장실, 사전 등록 수의사로부터 반려동물의 건강과 관련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등이 출시되고 있음
- 한편 반려동물 사료, 간식 부문에서는 친환경 요소가 강조되면서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이 프랑스 업계에서 유행하고 있음
 - 대체육, 식물성 단백질 개발의 유행 속에서 반려동물용 대체사료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는 추세

■ 유망 품목 3: 보온 용기

-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외식, 모임 등이 제한되면서 촉발된 도시락 등 보온 용기에 대한 관심이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음
 - 물가 상승으로 인한 외식비용 증가, 친환경 소비와 맞물린 일회용품 제한 움직임 등에 따라 프랑스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보온 도시락 수요 증가 추세
- 2021년 보온 용기(HS code 9617.00) 제품의 對프랑스 수입 금액은 전년('22) 대비 55% 증가
 - 최대 수입 대상국은 중국이며, 우리나라는 아직은 17번째 대상국이지만, 2021년 수입액이 3,197% 급증
- 현지 시장에서 보온 도시락 구매 시 살펴보는 주요 요인으로 환경 호르몬 등 인체 유해 성분 배출 여부가 중시되고 있음
 - Amazon 프랑스 사이트에서 인기 도시락 제품을 살펴보면, 내분비 장애 물질인 BPA(비스페놀A) 미검출을 강조하는 제품이 다수임

- 플라스틱 사용 반대 및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재질 선호 등의 트렌드에 따라 유리 재질을 찾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음
- 폴리프로필렌(PP)처럼 100% 재활용이 가능하면서도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재질이 사용된 제품이 선호되는 추세

〈환경을 생각한 유리 재질의 보온 도시락〉



자료: 파리 무역관 직접 촬영

〈도시락 재질에 대한 표기 예시〉



(BPA 미검출, 재생 플라스틱 사용 표시 등)

자료: 파리 무역관 직접 촬영

-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제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반찬을 위해 여러 개의 작은 칸으로 나뉘어 있는 도시락이 인기이나, 반찬보다는 요리에 집중하는 프랑스의 식문화 특징으로 도시락 내부 디자인이 훨씬 단순함
 - 또한 스테인레스 캠핑용 보온 도시락 및 보온병의 판매 비중이 높은 편으로, 파리 현지 매장의 진열품 비중을 살펴보면, 캠핑용 대형 사이즈의 보온 도시락 및 보온병 코너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경우 일본, 중국풍의 직사각형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음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HS Code	8507.60	수입관세율 (%)	0%
전기차 배터리	수입액 (US\$ 백만)	1,580	對한 수입액 (US\$ 백만)	140
	선정 사유	- EU 차원의 탈탄소 친환경 정책으로 프랑스 내 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수요 지속 상승 - EU는 2018년에서 2030년 사이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한 해 36GWh('18)에서 443GWh('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EU의 '공동 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의 일환으로 프랑스에 기가팩토리 프로젝트 진행		
	시장 동향	- 배터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 문제가 지속 중 -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희귀금속의 주요 생산국으로, 니켈 등 배터리 생산 핵심 원료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침 - 네오디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소금속 가격이 급등하면서 완성차 가격도 함께 급등		
	경쟁 동향	- 프랑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완성차 기업들은 배터리 생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Renault) '21년 중국의 Envision사와 협력해 프랑스 북부에 30억 유로 규모 배터리 공장 설립, '30년까지 연간 50GWh 생산 목표 - (Stellantis) Total Saft와 함께 배터리 기업 ACC 설립, 프랑스 북부 Douvrin 지역에 배터리 공장 건설 중. '24년 초부터 가동 목표		
	진출방안	- 프랑스 정부, '30년까지 연간 전기차 200만 대 생산 목표, '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계획 - 배터리 수요는 계속될 전망으로, 공급망 자립을 위한 EU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해외 인재 영입과 기술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음 - 유럽연합의 규제안과 프로젝트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장 진입 기회 활용 필요		
품목명 2	HS Code	2106.90	수입관세율 (%)	0%
스낵	수입액 (US\$ 백만)	1,551	對한 수입액 (US\$백만)	0.874
	선정 사유	- 프랑스에서는 저염식사 전 가법제 술을 마시는 아페리티프(Aperitif) 문화가 있어, 이때 짭맛이 나는 과자류를 함께 소비 -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프랑스인들은 평균 주 1회 이상 모여 아페리티프를 즐기며, 프랑스의 짭맛 스낵 판매 매출도 증가하고 있음		

	시장 동향	- '22년 기준, 프랑스 짬뽕 스낵 판매 매출 기준 시장 규모는 약 34억 유로로 전년 대비 7.4%가 증가 - 제품별로는 스낵류가 16억 790만 유로, 땅콩 등 견과류가 8억 9,610만 유로, 비스킷류가 8억 2,090만 유로 차지 - 팝콘, 육류스낵, 프레첼 등은 프랑스에서는 점유율이 낮은 편이며, 주로 비스킷과 감자칩의 인기가 높은 편 - 현재 프랑스 스낵시장 트렌드는 건강한 재료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출시된 상품들은 '메이드 인 프랑스'나 건강에 무해한 재료, 저염, 전통 치즈 사용 등을 전면에 홍보		
	경쟁 동향	- '21년 프랑스의 제조식품 수입액은 15억 5,130만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30.2%가 증가했으며, 10대 주요 수입국 모두 주변 유럽 국가로 조사됨 - 특히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영국과 같은 인접국으로부터의 수입 점유율이 큰 편 - 한국 대상 수입 규모는 2021년 기준 87만 달러로, 전년 대비 + 653%로 대폭 증가		
	진출방안	- 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K-푸드가 함께 인기를 끌면서 한국산 조미 스낵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국내산 조미김 제품이 프랑스에서는 음료와 함께 곁들이는 아페리티프 스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와 함께 채식 및 유기농 트렌드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품목명 3	HS Code	3822.00	수입관세율 (%)	0%
진단키트	수입액 (US\$ 백만)	2,270	對한 수입액 (US\$ 백만)	38
	선정 사유	- 프랑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개인이 일상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진단키트로 검사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진단키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시장 동향	- '21년 이후 프랑스 의료기기 시장은 코로나19로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전에 수요가 많았던 품목은 침체되고, 방역용품 및 팬데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장(호흡기, 장갑, 소독제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진단시약 및 키트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이어지는 추세		
	경쟁 동향	- 프랑스 의료기기 제조기업은 기업당 평균 15개의 하청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21년에는 플라스틱과 전자부품, 반도체, 철강 등의 공급망 문제로 의료기기 제조가가 50% 이상 증가한 상황 - '21년 프랑스의 진단키트 수입액은 22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 주로 네덜란드, 독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다섯 번째 주요 수입국 - 한국의 경우 프랑스의 9번째 규모의 수입국이며, '21년 총 3,800만 달러 규모 수입액을 기록 - 자가진단키트는 프랑스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정해두어 모든 제품의 가격이 비슷한 상태며, 일반 소비자의 경우 오프라인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상황		

	진출방안	- 코로나19 기간의 수요 폭등에 힘입어 한국 제품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EU 및 프랑스의 의료기기 시장은 규제가 많고 까다로운 편으로 진입이 쉽지 않음 - EU 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인증을 획득하고, 제품 안내서와 포장 등을 현지어로 작성하며 최대한의 관련 자료를 구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일단 진단키트 시장 진입에 성공하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한국 의료기기의 수출 공급선 확보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품목명 4	HS Code	3002.15	수입관세율 (%)	0%
면역물품	수입액 (US\$ 백만)	6,613	對한 수입액 (US\$ 백만)	154
	선정 사유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프랑스 소비자들 사이에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된 상황 - 계속적인 변이 바이러스와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으로 면역물품의 중요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시장 동향	- 프랑스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물품 산업을 국가의 주요 미래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20종 이상의 생의학 약품 개발 및 메드테크 육성 등에 30억 유로 투자 발표 - 지난 3년간 프랑스 내 면역물품 수입 규모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 - 프랑스는 '21년 총 66억 1,339만 달러 규모의 면역물품을 수입했으며, 주 수입 대상국은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8번째 주요 수입국으로, '21년 프랑스는 총 1억 5,462만 달러 규모를 수입했고, 이는 전년 대비 78%가 증가한 수준		
	경쟁 동향	- 프랑스 제약회사 Sanofi는 세계 5위 제약기업(유럽 1위), 세계 백신시장 점유율 상위 4개 기업 중 하나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백신뿐 아니라 면역 관련 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린이 아토피, 청소년 천식, 성인 만성비부비동염,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등과 관련된 면역 의약품을 주력 상품으로 개발 - 코로나 백신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을 겨냥하는 백신이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음. 프랑스 생명공학기업 Valneva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21년 여름 유럽 내 승인을 받았으나 수요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진출방안	- 프랑스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은 국립의약품청(ANSM)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이루어지며, 프랑스 약품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시장 판매 허가(AMM)를 받아야 함 - 코로나19 이후 면역물품을 비롯한 의료물품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태로 공급 부족에 대비한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후 프랑스의 주요 면역물품 수입국으로 부상한 만큼, 그동안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 품목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품목명 5	HS Code	0902.10	수입관세율 (%)	0%
녹차	수입액 (US\$ 백만)	67	對한 수입액 (US\$ 백만)	0.1
	선정 사유	- '21년 프랑스 뜨거운 음료 시장에서 차 제품군이 전년 대비 7.1%로 가장 역동적인 GDP 성장률을 기록 -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유기농, 자연주의 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시장 동향	- '21년 프랑스 차 제품 매출액은 6억 9,300만 유로 규모로 그 중 과일/허브차 (3억 3,200만 유로)의 인기가 가장 높으며 그 뒤로 블랙티(1억 7,290만 유로), 녹차(1억 6,610만 유로) 순 - 건강과 웰빙에 포커스를 맞춘 다양한 유기농 차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음		
	경쟁 동향	- 일반 상품의 시장과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으로 구분되며, 일반시장은 영국 글로벌 제조사의 점유율이 높은 편 - 프리미엄 브랜드는 프랑스 기업이 대부분이며, 단독 브랜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프랑스 전체 차 판매율의 20%를 점유, 세계적인 인기로 매년 높은 GDP 성장률 기록 - 프랑스의 주요 차 수입국은 폴란드와 중국으로, '21년 기준 프랑스의 녹차 수입액 6,732만 달러 중 對폴란드 수입이 1,624만 달러(24.1%), 對중국 수입액이 1,551달러(23.0%) 차지 - 10대 주요 수입국 중 유럽 외 국가는 중국, 일본, 스리랑카이며, '21년 기준 전년 대비 일본(+44.3%), 스리랑카(+52.7%) 비중이 크게 증가 - 한국은 프랑스의 19번째 녹차 수입국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으나 '21년의 경우 전년 대비 141.4%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 지속적으로 점유율 확장 중		
	진출방안	- 프랑스는 영국이나 동유럽 국가에 비해 차보다는 커피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고, 차 제품은 고급문화로 소비되는 편으로, 프랑스산 차 브랜드의 대부분이 프리미엄 제품 - 코로나19 이후 일상에서의 면역력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녹차의 항산화 및 항바이러스 효능이 주목을 받고 있음 - 녹차가 건강한 음료라는 인식이 커지는 만큼, 유기농 인증과 함께 품질과 맛, 친환경적이고 세련된 패키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서비스명 1		
VOD 드라마 콘텐츠	선정 사유	- K-pop의 인기로 한국 콘텐츠에 익숙했던 구독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영상 콘텐츠 플랫폼 이용도가 급증함에 따라 언어의 장벽 없이 손쉽게 해외 콘텐츠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음
	시장 동향	-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NC)에 따르면, '21년 프랑스 가구의 영상 콘텐츠 소비금액은 총 114억 유로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극장 영화 소비가 55.4%, VOD 소비가 7.3% 증가 - VOD의 경우 '20년에 전년 대비 16.4%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
	경쟁 동향	- '21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VOD 드라마 10편 중 한국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이 4위를 차지했고, 10위권 내 대부분은 미국, 스페인, 프랑스 작품이 차지 -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미국 콘텐츠가 45.3%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프랑스 38.2%, 유럽(프랑스 제외) 11.8%, 그 밖의 국가가 4.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장르별로 보면, '21년 프랑스에서 소비된 VOD 콘텐츠 중 67.2%는 드라마, 23.4%는 영화 콘텐츠이며 청소년 콘텐츠가 5.4%를 차지하고 있음
	진출방안	- 프랑스 방송사들의 콘텐츠가 현재 미국, 유럽 콘텐츠에만 편향된 상황이고, 이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 드라마 콘텐츠의 품질을 인정받을 경우 방송사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프랑스 공중파 방송에서 저녁시간대 방영되는 드라마의 대부분은 범죄/수사물로, 이 장르의 인기가 높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칸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방송콘텐츠마켓 MIPTV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프랑스 방송사 등과 콘텐츠 공동 제작 기회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서비스명 2		
원자력	선정 사유	- 프랑스는 에너지 소비에 있어 러시아 의존도가 낮은 편이지만, 노후화된 원전이 많아 가동이 중단되는 등 새로운 발전시설 건설이 필요한 상황 - 또한 프랑스 전력의 약 7%는 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러-우크라이나 사태가 전기 및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심각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함
	시장 동향	- '17년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은 기존의 탈원전 정책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는 지키되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전환 - '21년 10월 혁신적 소형 원자로(SMR) 계획을 포함시킨 미래산업 육성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22년 2월, 2050년까지 EPR2 타입 원자로를 최소 6기 건립할 계획을 발표함

	경쟁 동향	- 총 10억 유로가 투자될 전망인 소형 원자로(SMR)는 2030년까지 프로토타입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영 전기회사 EDF가 '22년 6월, 소형 원자로 프로젝트 Nuward의 설계가 현재 프랑스 원자력 안전당국의 평가 단계에 있음을 발표한 바 있음 - EPR2 타입 원자로는 '10년대 중반부터 EDF와 국영 원자력 기업 Orano가 함께 연구해왔고, '19년 프랑스 원자력 안전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상황
	진출방안	- 프랑스는 당장 노후 원전 교체가 시급한 숙제이고,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향후 원전 건립에 적극적이고 폭넓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경우 프랑스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이 발달한 나라인 만큼, 프랑스의 향후 원전 프로젝트에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투자 프로젝트와 주요 기업 및 기관 정보를 파악해 기술협력, 인력 진출 등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서비스명 3		
수소	선정 사유	-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프랑스의 그린수소 산업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앞서가는 상황 - 프랑스 정부는 '20.9. 향후 10년간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70억 유로 투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1년 19억 유로 추가 투입 계획 발표 - 탄소 중립화를 위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교통 및 운송 부분의 탄소 배출 저감 솔루션 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저장 기술 개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시장 동향	- 프랑스 수소 생산량은 한 해 약 90만 톤으로, 크게 석유 탈황 공정(60%), 비료(25%), 화학(10%) 물질을 위한 암모니아 공정, 세 개의 시장에서 가장 큰 수요가 있음 - 프랑스 수소 생산의 94%는 가스, 석탄, 탄화수소 등 석탄 에너지에서 비롯되며 프랑스 국내 전체 탄소 배출량의 3%에 해당
	경쟁 동향	- 수소 프로젝트는 경쟁 공모 방식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됨 - 산업, 운송, 전력 등 용도에 관계없이 수소 생태계(생산, 저장, 운송) 전반의 혁신 활동(R&D, 실증, 시범사업, 상업화 등)이 지원 대상 - 지자체, 민간기업, 협회 등이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산업 부문은 프로젝트당 평균 250만 유로, 운송 부문은 400만 유로 수준에서 정부 지원('19년 기준)이 이루어지고 있음
	진출방안	- 정부 차원의 지원과 기업의 투자가 실행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며, 현지 주요 기업의 프로젝트 이행에 따라 해외 유력 기업과의 협력도 활발해질 전망 - 프랑스 및 유럽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산업 전시 등을 통해 현지 유관 기관,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명 4	
전자상거래	선정 사유 - 코로나19가 프랑스 소매·유통 시장의 디지털화를 재촉한 결과, 프랑스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프랑스 소매·유통 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9.8%에서 작년('20)에 13.4%로 3.6%p 증가했으며, 오는 2025년에는 25%까지 확대될 전망
	시장 동향 - 이커머스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트렌드는 강화되고 있는 프랑스 정부 및 EU 차원에서 기업의 ESG 요소이며, 프랑스 물류업계는 친환경 배송 시스템 구축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물류 동선의 최적화, 전기차량 이용 확대, 근거리 배송에 자전거 및 드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을 대체한 종이 사용 등 친환경 포장재 개발과 포장 방식의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경쟁 동향 - 프랑스 전자상거래 시장의 73.6%는 연간 1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거둔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1,000만 유로 사이의 기업이 17.8%로, 대형 플랫폼의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황 - 프랑스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Amazon이며, 그 다음으로 전자제품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인 Cdiscount, 식품 및 가전 소비재 오프라인인 Auchan이 세 번째 규모
	진출방안 - 코로나19로 프랑스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가 생활화된 만큼, 프랑스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소비재 유통기업 및 판매업계는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채널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해외 직구 가격경쟁력이 희석되고 있음에 따라 역외 제조·유통업체 입장에서는 프랑스 및 유럽연합 현지 마켓플레이스와 협력하거나 현지 수입·통관 협력업체를 경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서비스명 5	
음악 스트리밍	선정 사유 - 프랑스에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K-pop의 인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동향을 이해하고 현지 문화에 따른 진출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시장 동향 - 프랑스 음반협회(SNEP)에 따르면, 2020년 프랑스 음악시장 매출 규모는 7억 8,100만 유로 수준 - 부문별로는 디지털 음원 수입 4억 7,400만 유로('19 대비 18% 증가), CD 및 LP 등 음반 판매 매출은 1억 8,400만 유로(20% 감소), 공공장소, 상업 시설의 저작권접권 매출 1억 100만 유로(19% 감소) - 프랑스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원 부문이 선도하고 있으며, 월정액 가입형 스트리밍 및 일반 스트리밍,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음악 파일 다운로드, 휴대폰 벨소리 등으로 구성 - 2020년 프랑스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가입형 스트리밍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전년 대비 8%p 증가한 수치이며,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경쟁 동향	- 프랑스에는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 현재 대부분 진출해 있음. 시장 조사 전문회사인 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프랑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은 Spotify로 41%를 차지 - 2위를 차지한 기업은 프랑스 Deezer(36%)로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전 세계 가입자 수 9위를 차지. 이어서 3위는 Amazon Music(24%), 4위 Youtube Music(22%), 5위 Apple Music(18%)으로 집계됨 * Deezer는 2007년 파리에서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현재 18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개시, 전 세계 1,600만여 명이 이용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진출방안	- 최근 프랑스 국내 5G 상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 기반 서비스 수요 증가로 프랑스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지속 성장할 전망 - 프랑스는 문화 영역에서 각별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음악 콘텐츠를 비롯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있어서도 프랑스 고유 방식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파악해서 적용 필요

첨부 3 '23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주요 내용	시기
1	무역사절단	- K-뷰티 유럽 무역사절단 - 전남도 유럽 시장개척단	2분기 2분기
2	해외 전시회 (국고 지원 단체 참가)	- 2023 프랑스 파리 춘계 텍스월드 - 2023 프랑스 파리 추계 텍스월드 - 2023 프랑스 파리 광학 전시회 - 2023 프랑스 인테리어 전시회	1분기 3분기 3분기 3분기
3	GP 사업	- 수소 인프라/모빌리티 소재, 부품, 장비 글로벌 파트너링 (HyVolution 2023) - 원전 기가재 구매 조달 설명회	1분기 2분기
4	소비재 전략 마케팅	- 서울시 뷰티-패션 Week (전시 상담, 샘플 박스, 서울-파리 협력사업) - K-푸드 유통망 입점 지원	2분기 3분기
5	서비스 진출 지원	- K-웹툰/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상담회, 시연회)	3분기
6	스타트업 진출 지원	VivaTechnology 주빈국 참가 (전시상담, 피칭/IR, 한-프랑스 협력행사)	2분기
7	2030 부산세계박람회 사업	부산세계박람회 국제세미나 개최 부산 협력 프로젝트 홍보사업	2분기 연중

첨부 4 '23년도 정치·경제 주요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 현재까지 정해진 주요 일정 없음

■ 주요 경제·통상 일정

- 법령 제정/예산 일정 : 외투법, 에너지법 개정 등 법령 개정 및 예산 발표
- 무역협정 : FTA, CEPA 등 무역협정 협상 시작/완료/체결/발효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4년 프랑스 정부 예산 발표	2023년 9월 하순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가구/가구산업/공예품/의류/패션/액세서리/목재가공/디자인/그래픽	디자인 가구/인테리어 소품/공예/생활용품	프랑스 파리 메종 오브제 전시회 (Maison & Objet)	1.19~23/파리 9.7~11/파리
패션	의류/패션/액세서리	프랑스 파리 후즈 넥스트 전시회 (Who's Next)	1.21~23/파리 9.2~4/파리
섬유 원단	섬유 원단/기능성 원단	프랑스 파리 텍스월드 전시회 (TEXWORLD PARIS)	2.6~8/파리
섬유 원단	고급 섬유 원단	프랑스 파리 프르미에르 비지옹 전시회 (Première Vision Paris)	3.29~30/파리
복합첨단산업	신소재/중간재/원자재/보조재	프랑스 파리 국제 복합 및 신소재 박람회 (JEC Europe Composites Show Paris)	4.25~27/파리
광학	안경/렌즈/콘택트렌즈/광학기기	프랑스 파리 광학 및 안경 박람회 (SILMO Paris)	9.29~10.2/파리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곽미성	대리	파리 무역관	33-1-5535-8878	gms@kotra.or.kr
8			본사 000팀		



윤리경영·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3
프랑스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